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족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개인변인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구 정 아

가족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개인변인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희 순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구 정 아

구정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김희순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이태화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이혜정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정경미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박창기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년 12월 일

차 례

차례	i
표차례	iii
그림차례	iii
부록차례	iv
국문요약	v
I. 서론	1
A. 연구 필요성	1
B. 연구 목적	5
C. 용어 정의	5
II. 문헌 고찰	10
A.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10
B. 가족 회복력	12
C. 개인변인	20
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23
A. 연구의 개념적 기틀	23
B. 가설적 모형	24
C. 연구 가설	26
IV. 연구 방법	28

A. 연구설계	28
B. 연구대상	28
C. 연구도구	29
D. 자료수집	34
E. 자료분석방법	35
V. 연구결과	36
A. 대상자의 특성	36
B.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37
C.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38
D. 확인적 요인분석	41
E. 가설적 모형 검증	45
F. 연구가설의 검증	56
VI. 논의	62
A. 가족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 모형의 적합성	62
B. 연구의 의의	66
C. 연구의 제한점	67
VII. 결론 및 제언	69
참고문헌	73
부록	86
Abstract	101

표 차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3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8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40
Table 4. Fitness Indices of CFA	42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44
Table 6. Fitness Indices of hypothetical model	47
Table 7. Parameter estimate and standardized solution of hypothetical model	50-51
Table 8.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for hypothetical model	54-55
Table 9. Hypothetical testing results	61

그림 차례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23
Figure 2. Hypothetical model	25
Figur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hypothetical model	43
Figure 4. Hypothetical model with pathway	51
Figure 5. Hypothetic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52

부 록 차 례

부록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승인서	86
부록 2. 대상자 설명문	87
부록 3. 대상자 동의서	89
부록 4. 설문지	90



국문요약

가족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개인변인의 매개효과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불안, 약물사용이나 음주, 폭력, 자살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 있고 부적응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한 청소년의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McCubbin 등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토대로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변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가족 회복력과 개인변인의 매개요인으로 구축하였다.

자료수집은 D광역시와 경북 G시에 소재한 4개의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남녀 학생 총 328명의 자료가 최종분석 되었다.

연구설계단계에서 개발한 가설적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 , χ^2/df , GFI, NNFI, CFI 등이 양호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변인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애착을 매개로 가족회복력 요인의 가족강인성과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McCubbin 등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확대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개인변인의 매개요소를 고려한 전략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핵심단어 : 가족 회복력, 개인변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구조방정식모형

I. 서론

A. 연구 필요성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전 발달단계인 아동기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신체적 급성장과 더불어 심리사회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청소년은 이와 같이 신체적, 심리사회적 급격한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인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부적응을 일으키기도 한다(정옥분, 2013).

우리나라 청소년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적인 학업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면서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주관적 행복감에서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청소년백서, 2011). 또한 학업 및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어 스트레스 상황은 더욱 가속화 된다(권오숙 & 문성호, 2007; 김정미, 2010; 이서원 & 장용언, 2011; 이지연 외, 2005). 이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되어 60% 이상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우울감 경험은 남학생 25.2%, 여학생 37.1%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자살 생각은 남학생 13.1%, 여학생 20.4%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원인 중 자살이 질병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윤희, 2015, 방정환교육재단, 2014).

또 다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으로 비행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이외에도 사회적 고립, 우울, 소외감, 좌절감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김보성 외, 2009; 배정이, 2008).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불안, 약물사용이나 음주, 폭력, 자살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약한

청소년의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시기는 학업 성취뿐 아니라 자아정체감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가치관을 정립하여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성숙한 행동양식을 배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심리사회적응력도 길러야 한다(배정애 외, 2006; 오현아 외, 2008; 한상철, 2009). 이 시기의 성공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통하여 이후 성인기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발달기적 특성과 요구, 현대사회의 환경적 상황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이 요구되는데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상호작용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고, 특히 1970년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에 따라 강인하고 탄력 있게 적응하고 발달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유성경 & 심혜원, 2002; Masten, 2004). 즉, 자신이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에 따른 상황을 어떻게 조절하고 회복하는가에 따라 비행과 이탈로 이행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극복하여 성숙된 성인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상황을 잘 극복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측변수로는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등이 개인변인으로 확인되었다(김혜련 & 박수경, 2011; 문은식 2012; 박재산 외, 2010; 배정애, 2008; 송자경, 2003; 신성희, 2006; 이보람 외, 2013; 전재일 & 천수혜, 2008; Davey et. al., 2003; Luthar et. al., 2000).

하지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청소년이 속한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가족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족의 특성을 배제한 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와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고 본다(박민자 & 황기하, 2007). 알코올중독자 가정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연구(남영옥 & 김재한, 2003)에서 가족이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족강인성과 뇌성마비아동 가족 대상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 동원과 영적지지 추구 등이 청소년의 적응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Lin, 2000). 이러한 사항들은 가족 회복력 요소들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들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조절하고 완충시켜 적응을 도와주는 보호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Benzies & Mychasiuk, 2009; Masten, 2001). 보호요인으로는 개인요인과 지지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등과 같은 가족적 요인이 있다 (Benzies & Mychasiuk, 2009; Mandlaco et. al., 2000). 보호요인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을 조절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상황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행동패턴과 기능적 역량에 대한 회복력의 개념으로 인내하고 역경을 딛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한다(Walsh, 2003). 즉, 회복력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이해, 대처양상, 대인 관계에서 능력과 강점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나아가 위기상황 이전의 수준보다 더 나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Masten, 2004).

하지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특수한 질병이나, 가족환경 상황에서의 회복력 요인과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주로 다루고 있고 (김혜련 & 박수경, 2011; 남영옥 & 김재한, 2003; 문은식, 2012; 박민자 & 황기하, 2007; 박재산 외, 2010 ; 송자경, 2003; 신성희, 2006; 심미경, 2004; 전재일 & 천수혜, 2008; 배정미, 2008; Davey et. al., 2003; Lin, 2000; Luthar et. al., 2000) 가족 회복력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져 영향요인에만 초점을 두므로써 청소년의 개인변인에 관한 분석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를 기반으로 하는 강점 중심의 개인요인 및 가족 회복력 요인의 통합적인 관점에 관한 파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현상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족 회복력 모형(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을 토대로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개인변인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양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긍정적인 노력인 회복력(resilience) 관점에서의 접근 및 시도로 가족 회복력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과 가족 모두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수준의 지식체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키는 실제적인 간호중재 개발과 청소년의 건강문제 예방과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설적 모형을 McCubbin 등(1996)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근거로 제시하고, 개인변인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확대 적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회복력을 근거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를 검정한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 및 그 강도를 규명한다.

C. 용어정의

1.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이론적 정의 :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개체와 환경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으로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두 가지차원을 포함한다(Achenbach, 1991).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와 Edelbrock(1991)가 개발한 Youth Self-Report를 오경자 등이 번안,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로 표준화한 것으로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2001).

2. 가족 회복력

이론적 정의 : 개인과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행동양상과 기능적 역량으로 가족에서는 전체로서의 가족전체와 가족 구성원 개인의 안녕을 지키고 가족전체의 융합성을 지킴으로써 해체를 막고 회복하는 가족능력이며(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가족 구성원 개인의 경우 위기상황과 어려움에서도 참아내고 스스로 회복하여 마침내 성장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한다(Walsh, 2003).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McCubbin 등(1996)에 의해 제시된 회복력 모형에 근거해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 사소통, 가족지지 지각으로 보았으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강인성

이론적 정의 : 가족강인성은 가족의 내면적 힘과 내구성을 말하며, 생활상의 사건과 고난에 대한 통제감, 변화를 유익하고 발전적으로 보는 견해와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 적극적 경향으로 정의된다(McCubbin et al., 1996).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McCubbin 등(1986)이 개발한 가족강인성 척도(Family Hardiness Index: FHI)를 박인숙(200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문제해결대처

이론적 정의 :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용하는 행동전략 및 가족자원을 이용하고 발달시켜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과정 중이다 (McCubbin & McCubbin, 1993).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McCubbin, Osion과 Larsen (1981)이 개발한 문제해결대처 척도(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F-COPES)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로 지역사회 자원과 영적지지 추구에 해당하는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가족의사소통

이론적 정의 : 가족역경과 문제가 표현되고 해결되는 의사소통의 맥락이나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가족역경이나 어려움에 반응하는 대처방법을 말한다(McCubbin et al., 1996).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Barense와 Olson(1982)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 PACI(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차유림(2001)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가족지지 지각

이론적 정의 :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도움, 관심 등,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말한다(한미현, 1996).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청소년을 잘 이해해주는지, 관심이 많은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지,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지 등에 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를 근거로 한미현(1996)이 개발한 가족지지 지각을 측정하는 점수를 의미한다.

3. 개인변인

1) 자아정체감

이론적 정의 : 지금까지 준비된 개인의 내재적 불변성과 계속성이 타인에 대한 자기의미의 불변성과 계속성과 일치한다는 축적된 자신감으로서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며,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다. 즉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나가는 자아의 자질(ego-quality)이다(Erickson, 1968).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도구를 송현옥(200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로 측정하는 점수를 의미한다.

2) 부모애착,

이론적 정의 : 애착은 애착 행동체계의 개념을 통해 설명되는 자신을 지지해 주고 가치 있게 여기는 애착 대상자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Bowlby, 1969).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개정본 (IPPA-R)을 번안한 옥정(1998)의 척도로 부모용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또래애착

이론적 정의 : 청소년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를 주요 대상으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의 중요한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Armsden & Greenberg, 1987).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개정본 (IPPA-R)을 번안한 옥정(1998)의 척도로 또래용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Ⅱ. 문헌고찰

A.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인간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은 존재이며 환경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는 존재이다. 적응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개체와 환경과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욕구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다(Lazarus, 1981).

따라서 적응은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일컫는 개념(Berry, 1997)으로써,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는 생태학적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대인관계, 제도 등 광범위한 체계가 모두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까지 포함하며, 개체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김민정 & 신성만, 2010).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아동의 특성에서 성인의 형태로 이행하는 인생의 전환기로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하는 욕구의 발달과 더불어 생활의 중심이 차츰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서 동료 및 이성 관계, 학업, 진학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회적 제약과 사회적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등 많은 내·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발달기적 특성과 현대사회의 환경적 정황상 청소년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행동 및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료한 자아정체성과 새로운 개인적 만족감의 성취를 의미하며 특히 가족생활과 학교 등의 영역에서 일상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Berry, 1997; Searle &

Ward, 1990)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즉 심리사회적 적응은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이재민 & 황선영, 2008)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chenbach & Edelbrock(1983)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문제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구분하였다. 그 후 내면화 문제행동을 정신분열증, 신체화, 강박증, 우울증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Achenbach(1991)는 아동, 청소년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아동행동 조사지(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만들고, 요인분석을 통해 광범위한 범위의 요인과 협소한 범위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광범위한 범위의 요인으로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이 추출되었고, 협소한 범위의 요인으로는 위축행동, 신체증상,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주의집중 문제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역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반의숙, 2009).

문제행동에 관련된 연구는 홍경자(1986)가 Achenbach & Edelbrock(1983)의 문제행동 척도로 한국 아동에게 맞게 적용하여 내재화 요인, 외면화 요인, 혼합 요인 3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하위범주로 내재화 요인에는 우울성, 정신신체성향, 사회적 위축성, 정신병 성향, 강박성, 과잉 불안을 외면화 요인에는 미숙/공격성, 비행성, 히스테리, 성적문제, 과잉활동성, 편집성, 퇴행성을 그리고 혼합요인에는 학교거부성향, 정서 불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오경자 & 이혜련(1990)은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 12~16세 남아의 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 변수로 공격성, 비행, 신체증상, 과잉활동, 정신병, 불안, 사회적 위축, 우울, 미성숙, 정신분열성,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볼 때 비교적 동시 발생적인 행동 유형을 범주화한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이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발달과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정, 2003).

한미현(1996)은 문제행동유형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과잉행동, 불안 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이며, 최진희(2000)는 공격성, 부정직,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향, 미숙, 비행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위축과 우울/불안을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들에서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분류하고 있다(강민주 외, 2015; 김문정, 2003; 김선희, 2000; 이경님, 2004; 이정미, 2005; 박진아, 2001; 황혜원, 2011).

본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들은 바탕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분류하여 내재화 문제에는 우울/불안, 위축행동으로, 외현화 문제에는 비행,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B. 가족 회복력

가족 회복력이란 위험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처한 대상자들이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보일 뿐만 아니라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에 비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에 따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이 가능하고 더 적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나온 개념이다(오승아 & 이양희, 2001).

가족 회복력 모델은 Hill(1949; 1958)의 연구에 기초하여 McCubbin과 Patterson(1981)이 The Double ABCX Model로 확장시켰고 Typology Model(1988; 1989)로 발전되어 지금의 가족 스트레스, 조정 및 적응에 대한 회복력 모델(McCubbin & McCubbin, 1993)이 도출되었다. 회복력 모델은 가족

의 조정(adjustment)을 강조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원이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족위기로 발생될 때, 적응 단계가 시작된다. 가족조정단계와 마찬가지로 가족 적응단계도 많은 상호작용 요소들로 결정된다. 질병에 따른 가족체계나 체계내 요구들의 누적(AA), 가족 생활주기변화,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은 가족의 재생력이나 회복력(R)과 상호 작용한다. 회복력(R)은 새로운 가족기능패턴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고, 정립된 기능패턴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 재생력이나 회복력 요소들은 지역사회 의 지인(BBB)이나 가족들에 의해 지원되거나 가족평가에 의해 지지되는 강점 과 능력 같은 가족자원들(BB)과 상호 작용한다. 상황적 평가(CC)는 가족의 자 원과 상황에 따른 요구 간에 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형성된다. 위기상황에 대 한 상황적 가족평가(CC)와 가족 기능의 일치성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즉, 가족의 가치, 목표, 우선순위와 규칙들과 같은 가족의 쉐마(schema)(CCC) 와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가족 스트레스원에 대한 가족의 의미를 창조하고 변화는 상호작용을 낳는다. 자원과 평가요소는 위기상황에 대한 가 족의 적응을 쉽게 하는 가족의 문제해결과 대처전략목록(PSC)과 상호작용한다 (McCubbin & McCubbin, 1993; 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4; 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McCubbin, McCubbin, Thompson & Thompson, 1998).

회복력 모델은 위험원을 둔 가족들의 적응수준이 적응단계를 구성하는 요소 들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며 특히 성공적인 적응(XX)은 가족 고유의 내적 자 원과 능력(BB), 가족의 관계망 지지(BBB), 가족평가를 통한 가족의 쉐마와 가 족의 문제해결 대처능력(PSC)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력이라는 개념의 대두는 개인이나 가족의 ‘부적응’ 이나 ‘실 패’ 에 초점을 두었던 종래의 관점을 ‘적응’ 과 ‘성공’ 이라는 긍정적인 측

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Luthar(1991)는 적응의 개념을 ‘성공적인 적응’으로, Egeland, Carlson, Sroufe(1993)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적응적인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Masten, Best, Garmezy(1990)는 ‘위험적인 환경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과정에 있거나, 적응할 능력을 가졌거나, 결과로서 적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Garbarino(1999)는 적응을 ‘최고의 성공을 획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내 삶이 의미 있다는 느낌 등이 발달되어가는 과정’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개인이나 가족이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도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이 어떻게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가에 따라 때로는 스트레스 자체가 개인의 내적 힘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견고하게 하기도 한다(Rutter, 1987).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모든 부모와 가족이 똑같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가족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부적응 상태에 있게 되고 가족해체에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가족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더욱 강해지고 잘 극복하여 상황과 적응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완화하는 적응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심미경, 2003).

Antonovsky(1998)는 대참변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높은 수준의 기능을 설명하였고 McCubbin과 그의 동료(McCubbin & Patterson, 1983; Patterson, 2002)는 전쟁의 위기에서 많은 군인 가족들이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것을 목격하여 어떤 사람은 위험과 역경에 맞서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 어떤 것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가운데 역경에 직면하여 잘 적응하는 것을 ‘resilience’, 즉 ‘회복력’이라고 하였고, 회복력은 ‘의미심장한 역경의 상황 가운데 긍정적 적응을 하는 역동적 과정’을 포함한다(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부적응과 적응은 이분화된 것이 아닌 한 연속체 안에 존재한다(Garmezy, 1991). 적응개념은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성공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Luthar, 1991). 즉 위기적인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회복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조성암, 2004).

McCubbin & McCubbin(1993)의 회복력 모형은 스트레스적인 상황과 위기상황에 반응해서 시간에 따른 가족 행동의 경로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리함으로써 적응의 역동과정을 설명한 모델이다(심미경, 2004). Barnard(1994)는 가족 회복력의 개념에 관해 가족 회복력은 전체로서의 가족에 의해 공유되어지고 상호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개개인에 의해 보여 지는 개별적인 회복력의 집합체인지, 그리고 회복력이 있는 개인은 전체로서의 가족 단위의 회복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 역동은 개인과 가족 회복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McCubbin 과 McCubbin(1993)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강점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상호인과적인 개념으로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므로 개별적, 가족적, 지역사회 수준의 회복력은 상호 연관되어 있어 가족 회복력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고, 회복력 모형에서 제시되는 요인은 가족 유형과 가족 기능, 가족 강인성, 가족 일관성, 가족관, 가족 평가, 가족시간과 일상, 가족 의식, 건강, 사회적지지, 가족 해결의사소통, 가족 문제해결대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회복력에 관한 연구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이겨낸 개인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아동의 성장발달과 정신건강분야에서 회복력은 위험인자와 결과간의 관계, 개인의 발달과 정신병리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되었다(양혜영, 1994; Rutter, 1987; Verhaeghe, Defloor & Grypdonck, 2005), 이러한 회복력에 대한 연구들이 개인의 질환과 가족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내고 있어 가족의 역동과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에게는 가족이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여 가족 회복력은 위험요인 극복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조절한다(유성경 1999).

이러한 가족 회복력의 요인을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처,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강인성

가족강인성의 정의로는 가족 내적강점과 인내로 정의되는 가족특성으로서 생활상의 사건과 고난에 대한 통제감, 변화를 유익하고 발전적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 적극적 경향성이다.

McCubbin 등(1996)은 가족강인성은 적응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능력, 변화를 위협이라기보다는 성장을 유발하고 유익한 것으로 보는 시각, 스트레스 상황을 조정하고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능동적인 지향, 생활사건과 역경의 경과에 대한 통제감이 특징이며 가족의 내적 힘과 내구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암으로 사별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미영(1996)의 연구에서는 회복력인자 중 가족강인성이 사별가족의 적응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미경(2004)과 박인숙 등(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강인성은 가족의 긍정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지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탁영란 외(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 스트레스 및 긴장은 가족강인성을 매개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강인성을 회복력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송자경(2003)은 회복력 요인인 가족강인성을 통해 간질아동가족의 적응을 연구한 결과 가족 적응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 회복력 요인으로 밝혀져 가족 회복력 개발 및 강화를 통하여 가족의 적응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통해 가족강인성이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가족에게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힘의 근원으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유발되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파악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문제해결대처

문제해결대처는 가족 능력의 행동적 요소이며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시도나 행동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 자원을 이용하여 가족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울 수 있는 행위와 스트레스 상황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고 회복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다(McCubbin, 1979).

문제해결대처와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소아암 환자 부모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모들이 아동의 임상적 사건이 발생하면 대처전략을 수정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질병에 적응하였다(Yeh, Lee, Chen, Li, 2000). 이는 치료에 직면하고 가족통합성을 유지하고 지지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소아암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미경(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 적응에 가족강인성과 문제해결대처가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는 Katz(2002)의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회복력 모형에 관한 예측적 인과모형의 적합성 연구에서도 문제해결대처가 가족적응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대처가 회복력요인의 중요한 변수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문제해결 대처가 가족과 아동의 회복에 주요 예측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적절한 변수로 고려되어 본 연구의 회복력 요인에 포함시켰다.

3) 가족의사소통

회복력 모형에서 가족의사소통은 가족이 공통된 의미를 창조하고 대처전략을 발달시키고 서로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양상은 가족의 역경과 문제가 표현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가족환경과 의사소통의 배경을 창조하여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인식된다(McCubbin et al., 1996).

가족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에서 의사소통은 가족집단의 구성, 유지, 발전과 가족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가족은 의사전달 과정을 통해 주위환경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체계라고 보기 때문에 가족기능에 있어 의사소통은 중요한 변수이다. 감정이입, 지지적 반응 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가족 개개인의 요구변화를 공유하여 가족의 결속력 및 적응력 강화작용을 하며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을 최소화하여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회복력 연구자들도 가족내의 관계적인 과정을 회복력의 일차적인 요소로 보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관계 유형의 중심 양상 중 가족 결속력과 융통성 2가지 관계 유형이 밀접성과 거리 및 변화와 안정 사이에 균형 잡고 있는 가족인 경우 보호적인 요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이고 도구적인 의사소통 양상의 질이 가족 기능을 촉진하는 또 다른 보호효소가 된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가족기능을 충족시키고 가족 기능 수행에서 보호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Patterson, 2002).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의 가치와 자존감을 강조하고 지지와 돌봄을 표현하고 온화하고 진정시키는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이며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상황을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하고 흥분시켜 자극하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가족 황폐화와 가족적응을 감소시켜 불균형을 초래한다(McCubbin et al. 1996).

한 부모 가족자녀의 적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인으로 가족의사소통으로 나타나 가족의사소통이 원활한 경우 부모와 자녀관계가 더욱 활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족환경으로 적응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묘정, 2005; 조성암, 2004). 이는 가족의사소통이 관계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서의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혼 후의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양상이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있었으며(정현숙, 1993),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신념, 친사회적 경향,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Belsky, 1984). 반대로 부족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부모역할 능력감소를 보이기도 하였다(김승경, 2004). 하지만 소아암 환자 가족 회복력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심미경, 2004). 하지만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모의 별거,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아동이 성인 되어 가족의사소통의 장애요인에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대물린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강해자, 2001; 원정숙 & 신현숙, 2008).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가족의사소통은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변수로 밝혀졌으며 고위험 가족에게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재요소로 파악되므로 가족회복력 요인에 포함하였다.

4) 가족지지 지각

가족지지 지각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도움, 관심 등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다(한미현, 1996).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보상받는 역할체계와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가족지지 지각은 개인의 삶에 도움을 주고 지지적인 관계망은 심리장애 또는 신체적 질병이 발생할 소지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경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스트레스의 경험과 무관하게도 가족지지 지각을 통해 개인의 안

녕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이으며 이를 높이는 것이 개인의 안녕도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문제행동에 미치는 연구들에서도 가족지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아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현, 1996; Brook et al., 1990; Chassin 1984).

따라서 가족지지 지각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확인되므로 이를 가족회복력에 포함하였다.

C. 개인변인

1) 자아정체감

Erickson(1968)은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연속성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이라고 했다. 자아정체감은 자기에 대한 감각을 의미하고 일정한 사람간이나 집단 및 그 성원 간에 역할 달성, 공통 가치관의 공유를 통해 얻어진 연대감,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자존감과 잠정적인 자기상이다 (조기행, 2010).

이와 달리 Marcia는 자아정체감을 여러 가지 충동, 능력, 신념 및 개인의 생활사 등의 자체 발생적인 내적, 역동적 체계로서 보았고,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위기(crisis)의 경험 여부와 관여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성취, 유예, 폐쇄, 혼미로 구분하였다(신종임, 2010). Marcia는 정체감 4단계를 정체감 혼미의 하위단계에서부터 정체감 성취의 상위단계로 발달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4단계를 모두거치거나 그 순서가 반드시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상태가 반드시 영속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정체감 유예의 단계는 누구나 거치는 정체감 성취의 선결조건으로 여겨진다(이난, 2005). 자아정체감이 가장 선명하게 지각되는 것은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는 정체감을 철저히 체험하고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시기이다(신종임, 2010).

박아청(2003)은 자아정체감을 다차원적, 포괄적 개념으로 주체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등 하부영역으로 나누었다. 주체성은 주관적인 역할 또는 환경을 적극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미래 확신성은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목표지향성은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신뢰하고 주어진 과업이나 과업을 수행하고 실천의지의 정도, 친밀성은 타인들과의 친밀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갖고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단 속에서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자아정체감의 다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박아청의 자아정체감 개념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부모애착, 또래애착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애착이란 개인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타인 간에 “정서적 유대”로 정의된다. 즉, 애착은 유용한 의사소통, 지지 그리고 길잡이가 되는 부모와 동료와의 질적인 관계이다(Ainsworth, 1970; Armsden & Greenberg, 1987). 애착은 영아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며, 자아, 타인 및 세상을 보는 인지적 틀을 형성하여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애착은 사회 인지 발달의 근간으로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신감(social confidence)이 있으며, 타인에게 신뢰를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줄 안다(Bowlby, 1969). 애착은 청소년기의 자아(self)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6-18세 청소년 167명을 대상으로 한 O'Koon(199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상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rmsden & Greenberg(1987)은 16-20세 청소년 179명을 대상 연구에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의 애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부모의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 둘째,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게 된다(지수경, 2001).

Paterson의 연구에서는 애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성차 및 연령차가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은 지지와 근접성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어머니를 찾으며 높은 애착의 질을 보고하였으나 남자 청소년은 어머니에 대해 여전히 높은 애착의 질을 보였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 및 근접성의 추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여자 청소년에 비해 분리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남녀 청소년 모두 애착의 질을 낮게 보고하였고 지지와 근접성을 추구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였다(옥정,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릴 적 양육에 대한 경험은 초기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성향을 이해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A.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 회복력 요인(McCubbin et al., 1996)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McCubbin 등(1996)의 가족 회복력 모형에서 회복력이란 가족체계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 자원으로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힘, 가족이 행하는 대처행동, 개인·가족·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자원이 포함되며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지지 지각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을 가족 회복력 요인으로 보고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개인변인으로 확인된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을 매개변인으로,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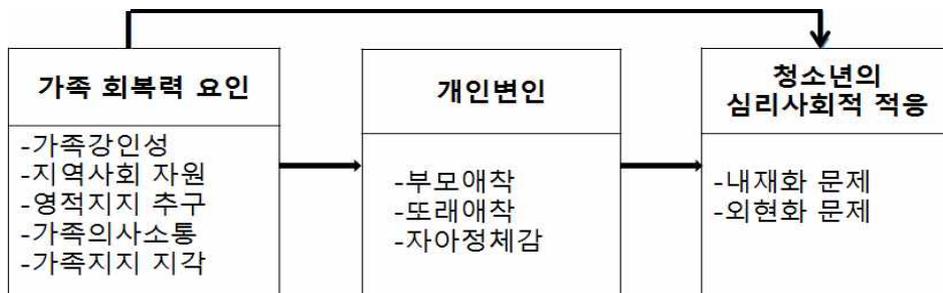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B.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근거로 한 가설적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 5개와 내생변수 5개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는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지지 지각이고, 내생변수는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성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내생변수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외생변수인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외생변수들이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내생변수인 자아정체감은 외생변수인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부모애착은 외생변수인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들 외생변수들이 자아정체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래애착은 외생변수인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으며, 이들 5개의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인 자아정체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하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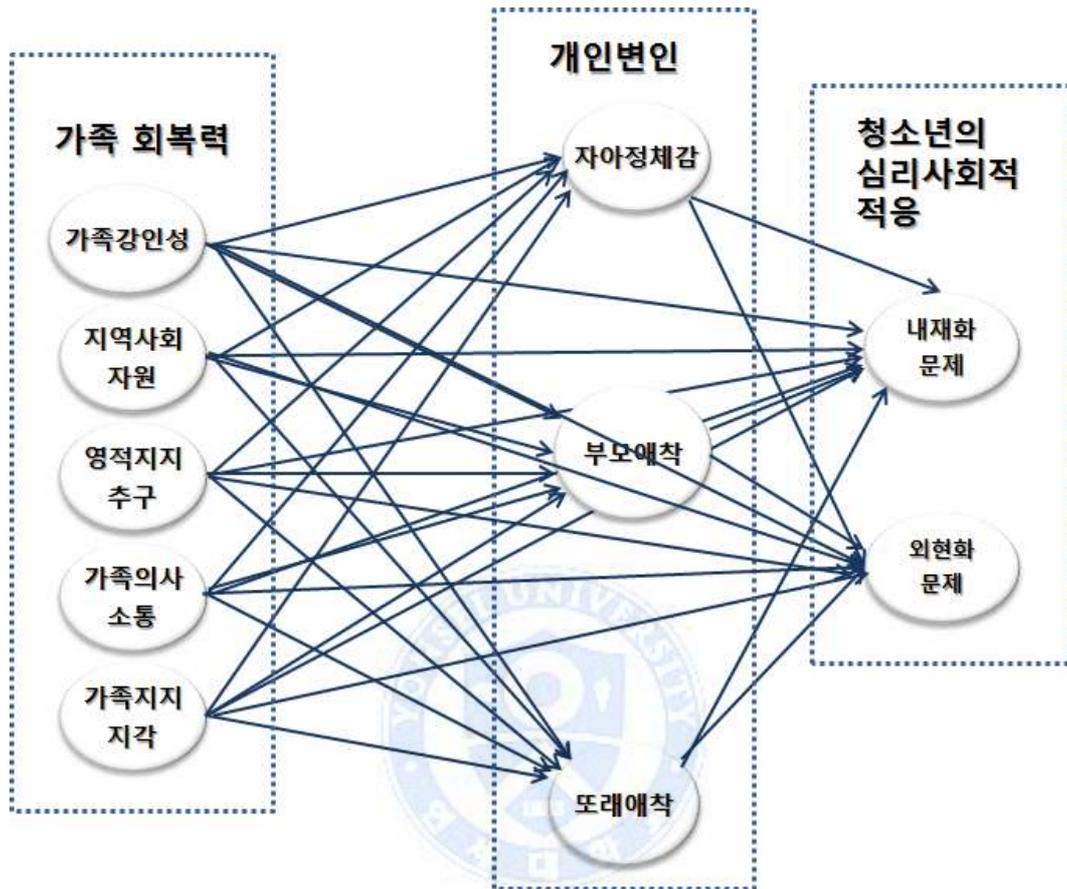


Figure 2. Hypothetical model

C. 연구의 가설

내생변수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가설적 모형에서 외생변수와 내생 변수간의 경로, 내생변수들 간의 경로에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1. 자아정체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1 : 가족강인성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 가족지지 지각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 영적지지 추구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 지역사회 자원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부모애착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6 : 가족강인성이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 가족의사소통이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8 : 가족지지 지각이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9 : 영적지지 추구가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0 : 지역사회 자원이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또래애착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11 : 가족강인성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 가족의사소통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 가족지지 지각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4 : 영적지지 추구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 지역사회 자원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내재화 문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6 : 가족강인성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 가족의사소통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 가족지지 지각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9 : 자아정체감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0 : 부모애착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또래애착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영적지지 추구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지역사회 자원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외현화 문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4 : 가족강인성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 가족의사소통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 가족지지 지각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 자아정체감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8 : 부모애착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 : 또래애착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0 : 영적지지 추구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지역사회 자원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청소년 적응을 설명, 예측하기 위해 McCubbin 등(1996)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이론적 기틀로 가족 회복력 요인인 가족강인성, 지역사회 자원과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과 개인변인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의 매개효과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로를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B. 연구대상

1. 대상자 선정기준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2015년 현재 국내 거주중인 중학교 2, 3학년 청소년 전수이며 근접 모집단은 D광역시와 경북 G시에 소재한 4개의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남녀 학생 총 400명이다. 대상자는 편의 표집된 4개의 남녀 중학교의 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선정기준은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남녀 청소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한다.

둘째, 학부모(주 양육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현재 청소년과 같이 거주하는 주 양육자로 한다.)

2. 표본의 크기 및 대상자수

구조방정식 모형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표본추출 오차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모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가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다는 근거에 기초하였으며(우종필, 2012) 추정할 계수가 39개이므로 추정계수당 10개 정도로 추천하기 때문에 390개의 표본이 적당하다고 보았다(Bentler & Chou, 1987; Nunnally, 1978). 따라서 본 연구는 총 400명의 설문지 중 설문지 내용이 불충분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18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82명의 자료가 사용되어 표본크기 기준에 부합한다.

C.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가족 회복력 요인으로 가족강인성 20문항, 지역사회 자원 4문항, 영적지지 추구 3문항, 가족 의사소통 10문항, 가족지지 지각 8문항과 매개요인인 개인변인으로 자아정체감 23문항, 부모애착 25문항, 또래애착 25문항이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내재화 문제 31문항과 외현화 문제 32문항과 일반적 사항 5문항으로 총 18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가족강인성

가족강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 등(1986)에 의해 개발된 가족강인성 척도(Family Hardiness Index: FHI)를 박인숙(2001)이 번안한 도구로 20문항이다. 협동성, 도전성, 통제감, 자신감의 4가지 하부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협동성은 가족이 내적 힘에 대한 감각 및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도, 도전성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려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고 통제감은 생활상의 사건과 고난에 대한 가족이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감은 앞

날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노력에 대하여 인정받는다는 느낌, 고난을 견디는 능력, 흥미롭고 의미있는 인생 경험 정도를 말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2였고, 박인숙(2001)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5이었다.

2. 지역사회 자원

문제해결대처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 등(1981)이 개발한 문제해결대처 척도(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F-COPES)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로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문제해결 및 행동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그 중 지역사회자원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자원을 찾는 가족의 능력 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통해 도움을 얻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6, 심미경(2004)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4이었다.

3. 영적지지 추구

문제해결대처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 등(1981)이 개발한 문제해결대처 척도(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F-COPES)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로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문제해결 및 행동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그 중 영적지지추구 3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통해 도움을 얻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6, 심미경(2004)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4이었다.

4. 가족의사소통

가족의사소통은 가족역경과 문제가 표현되고 해결되는 의사소통의 맥락이나 환경을 창조함으로서 가족역경이나 어려움에 반응하는 대처방법을 말한다 (McCubbin,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 PACI(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차유림(2001)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점 척도이며 총 10문항으로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는 자녀가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주제선택에 조심을 하여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의사소통 정도가 개방적,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차유림(2001)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79였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3이었다.

5. 가족지지 지각

가족지지 지각 척도는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 인정, 관심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man(1989)이 아동의 가족지지 지각 측정을 위해 3-7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를 근거로 한미현(1996)이 개발한 것을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7이었다.

6. 자아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도구를 송현옥(2009)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한다.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수용성 5문항, 미래 확신성 7문항, 목표지향성 6문항, 주도성 5문항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수용성은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능력과 취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미래 확신성은 자신의 장래직업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목표 지향성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 주도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정도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는 .94였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8이었다.

7. 부모애착 척도

부모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개정본(IPP-R)을 변안한 옥정(1998)의 척도로 부모용 25문항으로 의사소통 9문항, 신뢰 10문항과 소외 6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과 부정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rmsden과 Greenberg(1987)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7로 측정되었고 옥정(1998)의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5 이었다

8. 또래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개정본(IPPA-R)을 번안한 옥정(1998)의 척도로 또래용 25문항으로 긍정과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의사소통 8문항, 신뢰 10문항, 소외 7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5점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Paterson, et al., 1995). Armsden과 Greenberg(1987) 도구의 또래애착의 *Cronbach's α* .92로 측정되었고 옥정(1998)의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또래애착의 *Cronbach's α*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다.

9.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은 정서적, 행동적 적응상태를 의미한다.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등(2001)이 번안,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의 행동문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31문항, 외현화 문제(규칙위반, 공격행동) 32문항, 총 63문항을 사용한다. 응답은 최근 6개월 내에 있었던 빈도에 따라 0점부터 2점까지 3점 척도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영역 행동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내재화 문제 .92, 외현화 문제 .91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내재화 문제 .87, 외현화 문제 .89이었다.

D. 자료 수집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승인번호 : 간대 IRB 2015-0029-1; 부록 1)후 자료 수집절차를 진행하였다. IRB 승인 후 4개의 중학교에 연구계획서, 설문지 및 IRB 승인서류와 학부모와 학생용 설명문을 첨부하여 해당학교 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 협조를 의뢰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중학교 2, 3학년 학생에게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등이 제시된 연구의 설명문을 만들고 제공하였다. 연구 동의서에는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참여를 철회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명기하고, 본 연구자의 전자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제시하였다. 학부모와 대상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원본은 본 연구자가 보관하고, 사본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이 완료된 직후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는 따로 보관하고, 개인번호를 부여한다. 수집된 설문지는 1년간 밀봉된 상자에 보관한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에 앞서 청소년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1명, 3학년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의 용이성과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각 학급 담임선생님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소요시간, 보호자 및 대상자의 연구 참여 동의과정을 설명 후에 자료 협조를 구하였다. 각 학교의 중간고사 등의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는 일자에 학급 담임선생님의 아

침 조회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작성 후 설치된 박스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5분이었다. 설문지 작성 후 연구대상자에게 책에 꽂을 수 있는 제작 한 볼펜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E.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0.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계수 및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분석하였다.
- 2)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연구 가설검증을 위한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설정된 가설모형의 검증은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하고,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I)을 사용한다. 또한 가설적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df , 기초부합지수(GFI), 근사오차평균자성의 이중근(RMSEA)을 통해 분석한다.

V. 연구결과

A. 대상자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00명이었으나, 최종 문항까지 응답한 대상자는 382명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el 1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학생 190명(49.7%), 여학생 192명(50.3%)으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학년의 분포는 2학년인 196명(51.3%), 3학년이 186명(48.7%)이었다. 성적 분포는 ‘상’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6명(25.1%), ‘중’ 은 204명(53.9%), ‘하’ 는 80명(20.9%)이었다. 형제자매의 수는 외동이 42명(11.0%), 2명이 275명(72.0%)이 가장 많고, 3명이 61명(90.6%), 4명이 4명(1.0%)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로는 핵가족이 349명(89.4%)이고, 확대가족이 36명(9.4%)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382)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0	49.7
	female	192	50.3
grade	2nd	196	51.3
	3rd	186	48.7
academic performance	high	96	25.1
	intermediate	206	53.9
	low	80	20.9
the number of sibling	0	42	11.0
	1	275	72.0
	2	61	16.0
	3	4	1.0
family member	nuclear family	346	90.6
	extended family	36	9.4

B.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Table 2).

가족 강인성은 평균은 3.06 ± 0.37 점으로 중간보다 높았으며, 지역사회자원 평균은 2.13 ± 0.79 점, 영적지지 추구의 평균은 2.06 ± 1.22 점으로 ‘보통’ 보다 낮은 수준 이었다. 가족의사소통 평균은 2.95 ± 0.49 점이었으며, 가족지지 지각은 평균은 3.24 ± 0.55 점 이었고, 자아정체감은 평균은 3.55 ± 0.58 점, 부모 애착은 평균은 3.68 ± 0.60 점 이었으며, 또래애착은 평균은 3.72 ± 0.49 점 이었고, 내재화 문제 평균은 $.27 \pm 0.27$ 점, 외현화 문제 평균은 $.24 \pm 0.22$ 점으로 나타났다. 연속변인의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전통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단일변량의 개별적인 변인들의 경우 왜도와 첨도의 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공변량 구조모형의 왜도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작거나, 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0.0보다 작은 경우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문수백, 2009; Kline,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왜도, 첨도는 절대값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모든 변수들이 단일변량 정규분포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382)

Variables	M±SD	Range	Min	Max	Skewness	Kurtosis
family hardiness	3.06±0.37	1-4	1.35	4	-.108	.642
community resource support	2.13±0.78	1-5	1	5	.871	1.530
spiritual support	2.06±1.22	1-5	1	5	.956	-.295
family communication	2.95±0.49	1-4	1.29	4	-.162	.146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3.24±0.55	1-4	1.25	4	-.723	1.126
Ego- identity	3.55±0.58	1-5	1.98	4.86	.010	-.317
parental attachment	3.68±0.60	1-5	1.46	4.74	-.737	.424
peer attachment	3.72±0.49	1-5	2.40	4.84	-.226	-.537
internalizing problem	.27±0.27	0-2	0	1.40	1.436	1.922
externalizing problem	.24±0.22	0-2	0	1.07	1.292	1.540

C.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변수가 상호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특히 가족강인성과 가족지지 지각($r = .675$, $p < .01$),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지지 지각($r = .663$, $p < .001$), 가족강인성과 가족

의사소통($r=.636, p<.001$), 가족지지 지각과 부모애착($r=.641, p<.001$), 가족 의사소통과 부모애착($r=.621, p<.001$), 가족강인성과 부모애착($r=.587, p<.001$), 가족강인성과 자아정체감($r=.542, p<.001$)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강인성은 가족지지 지각($r=.675, p<.001$), 가족의사소통은 가족지지 지각($r=.663, p<.001$), 가족지지 지각은 부모애착($r=.641, p<.001$), 자아정체감은 또래애착($r=.418, p<.001$), 부모애착은 또래애착($r=.37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내재화 문제($r=-.306, p<.001$), 외현화 문제와($r=-.233, p<.001$)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382)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	1									
x2	.152***	1								
x3	.025***	.195***	1							
x4	.636***	.148***	-.009	1						
x5	.675***	.131*	-.031	.663***	1					
x6	.542***	.009	-.042	.389***	.313***	1				
x7	.587***	.100	.000	.621***	.641***	.362***	1			
x8	.463***	.032	-.015	.337***	.380***	.418***	.377***	1		
x9	-.301***	-.010	.021	-.275***	-.203***	-.338***	-.314***	-.306***	1	
x10	-.284***	.037	.077	-.257***	-.203***	-.278***	-.283***	-.233***	.858***	1

* $p < .05$, ** $p < .001$

x1:family hardiness

x2:community resource support

x3:spiritual support

x4:family communication

x5:perception of family support

x6:ego-identity

x7:parental attachment

x8:peer attachment

x9:internalizing problem

x10:externalizing problem

D.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분석을 위해 앞서 연구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3).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은 가족강인성, 지역사회자원, 영적지지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 10개로 구성하였다. 가족강인성(20항목), 지역사회자원(4항목), 영적지지추구(3항목), 가족의사소통(10항목), 가족지지 지각(8항목), 부모애착(25항목), 또래애착(25항목) 등은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아정체감은 주도성(5항목), 목표지향성(7항목), 미래 확실성(6항목), 자기수용성(5문항)등 4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내재화 문제는 불안우울(13항목), 위축우울(8항목), 신체화 증상(10항목)과 외현화 문제는 규칙위반(15문항)과 공격행동(17문항) 구성되어 있다. 이때 요인 부하량은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최소 .5이상, C.R. 값은 1.965이상으로 나타나야한다(우종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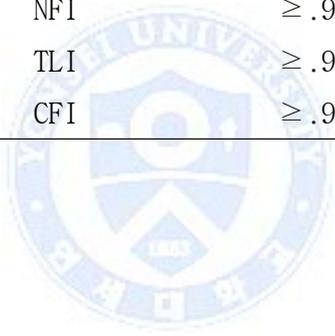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영적지지추구의 요인 부하량이 기준치인 .5 보다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으나, 기준치보다 크게 낮지 않고, 영적지지 추구요인을 삭제시 하나의 하위 변인(지역사회 자원)만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구성개념의 의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χ^2 (CMIN)=175.779($p<.001$), Normed χ^2 (CMIN/DF)=2.624, GFI(Goodness of Fit Index)=.946,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890, RMR(Root Mean-squared Residual)=.017, SRMR(Standardized RMR)=.046,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65 등이 만족도 기준에 부합하였다.

Table 4. Fitness Indices of CFA

(N=382)

Fitness Indices	Fit Index	Estimate	
Absolute Fit Measure	χ^2 (Cmin) (<i>p</i> value)	$p \geq .05$ ($p < .001$)	175.779
	χ^2/df	$\leq 1.0(2.0-3.0)$	2.624
	GFI	$\geq .90$.946
	AGFI	$\geq .90$.890
	RMR	.05-.08	.017
	SRMR	$\leq .08$.046
Incremental Fit Measure	RMSEA	$\leq .10(.05-.08)$.065
	NFI	$\geq .90$.936
	TLI	$\geq .90$.926
	CFI	$\geq .90$.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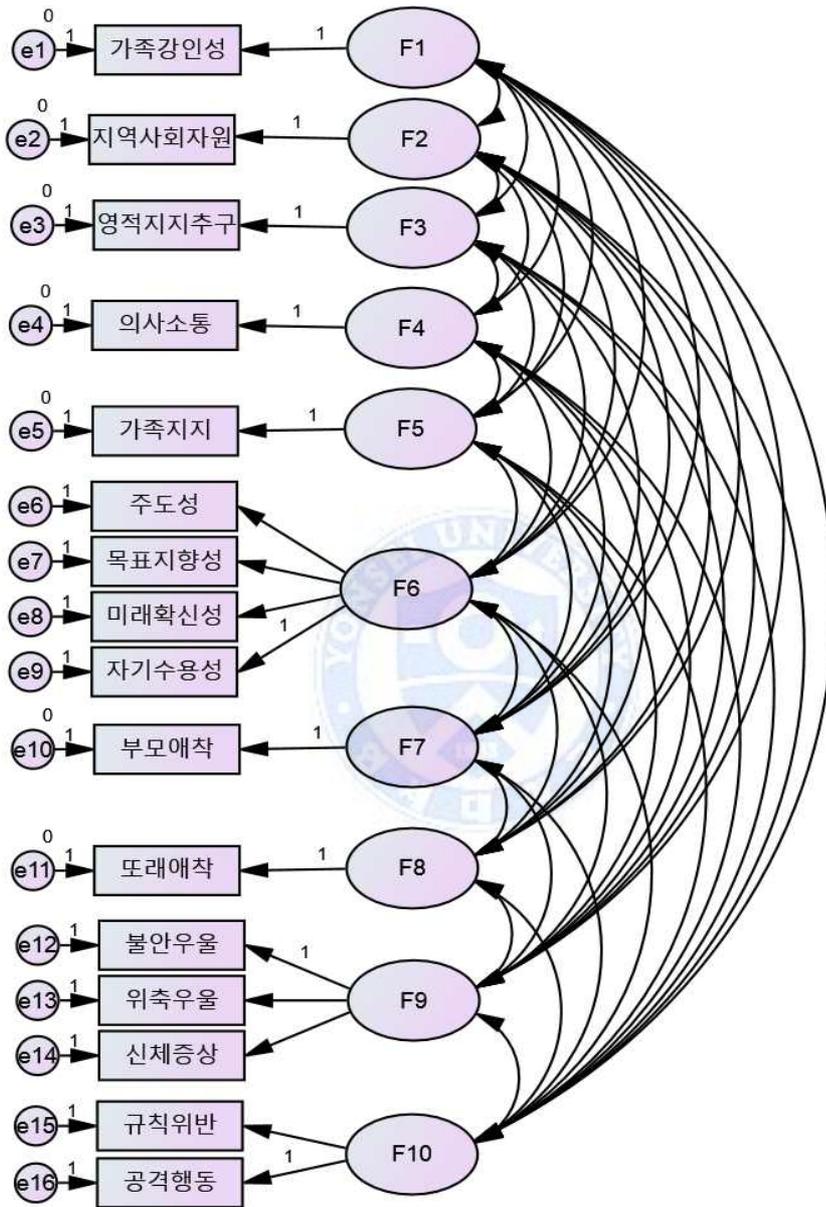


Figur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hypothetical model

□: 관측 변수, ○: 잠재변수

Table 5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Variables	sub categories	B	S.E.	β	C.R	p
family hardiness		1.000			-	-
community resource support		1.106	.522	.547	2.121	.034
spiritual support		1.000		.319		
family communication		1.000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1.000				
Ego-identity	Self-Acceptance	1.000		.756		
	Certainty in the future	.573	.072	.500	7.985	***
	Goal orientation	1.055	.085	.809	12.450	***
	Initiative	.967	.078	.744	12.473	***
parental attachment		1.000				
peer attachment		1.000				
psyc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Anxiety/ depression	1.000		.925		
	Intimidated/ depression	1.034	1.074	.854	20.037	***
	Symptom of Somatization	.660	.044	.697	15.015	***
externalizing problem						
Violation of Rules Aggressive Behaviors	.502	.035	.764	14.380	***	
		1.000		.919		

*** $p < .001$

E. 가설적 모형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 청소년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McCubbin 등(1996)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 적응관련 요인으로 가족강인성, 지역사회자원, 영적지지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를 관측변수로 설정한 가설적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모델의 모수 추정법은 데이터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표본의 크기가 200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GLS)을 이용하였다.

모델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Table 6).

절대적합지수는 제안한 모델의 공분산행렬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chi^2(\text{CMIN})$, Normed $\chi^2(\text{CMIN}/\text{DF})$,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R(Root Mean-squared Residual), SRMR(Standardized RMR),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이 있다.

$\chi^2(\text{CMIN})$ 은 가장 대표적인 절대적합지수로 구조방정식에서는 수치가 클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모델적합도 중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 p 값을 제시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chi^2(\text{CMIN})$ 값이 192.629($p < .001$)로 확률값이 0.05보다 적게 나타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표본의 크기에 따라 민감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chi^2(\text{CMIN})$ 값에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배병렬, 2009; 김주환 외, 2009). Normed $\chi^2(\text{CMIN}/\text{DF})$ 값은 2.0-3.0정도이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2.378로

나타났다. GFI는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적합도이며 표본 크기가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200 이상이면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보통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0.941로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AGFI는 모델 자유도에 GFI가 확장된 형태로 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0.901로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RMR은 표본공분산행렬과 모델 추정 공분산행렬간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이며 0.05 이하면 적합한 모델이며 본 연구에서는 0.019로 적합하였다. SRMR은 0.08 이하이면 모델 적합도가 좋은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0.048으로 모델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는 χ^2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 0.05~0.08 사이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0.060이었다.

증분적합지수는 NFI(Normed Fit Index), RFI(Relative Fit Index), IFI, TLI, CFI를 이용하며 0.9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보며, 본 연구에서는 NFI는 .930, TLI는 .937, CFI .958 로 나타났다.

한가지 적합지수만으로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χ^2 , CFI, SRMR, RMSEA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Hai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합지수들이 대부분 양호하여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itness Indices of th Hypothetical Model

(N=382)

Fitness Indices	Fit Index	Estimate
Absolute Fit Measure	χ^2 (Cmin) (<i>p</i> value)	$p \geq .05$ ($p < .001$)
	χ^2/df	$\leq 1.0(2.0-3.0)$
	GFI	$\geq .90$
	AGFI	$\geq .90$
	RMR	.05-.08
	SRMR	$\leq .08$
Incremental Fit Measure	RMSEA	$\leq .10(.05-.08)$
	NFI	$\geq .90$
	TLI	$\geq .90$
	CFI	$\geq .90$

2. 가설 모형의 모수추정

가설적 모형의 모수추정을 위해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standard error : SE), 고정지수 값(critical ratio : C. R.)과 내생변수의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SMC)를 이용하였다(Table 7).

가설적 모형은 31개의 경로 중 13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한 경로는 가족강인성↔자아정체감, 가족의사소통↔자아정체감, 가족지지 지각↔자아정체감, 가족강인성↔부모애착, 가족의사소통↔부모애착, 가족지지 지각↔부모애착, 가족강인성↔또래애착, 자아정체감↔내재화 문제, 부모애착↔내재화 문제, 자아정체감↔외현화 문제, 부모애착↔외현화 문제 등이다.

자아정체감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지역사회 자원 ($\gamma=-1.95$, $p=.510$), 영적지지 추구 ($\gamma=-1.32$, $p=.18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가족강인성 ($\gamma=.64$, $p<.001$), 가족의사소통 ($\gamma=.18$, $p<.001$), 가족지지 지각 ($\gamma=-.17$, $p<.001$)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가족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가족지지 지각이 낮을수록 자아정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강인성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의 설명력은 40.8%이다.

부모애착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지역사회 자원 ($\gamma=-4.17$, $p=.676$), 영적지지 추구 ($\gamma=.31$, $p=.755$)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강인성 ($\gamma=.19$, $p<.001$), 가족의사소통 ($\gamma=.29$, $p<.001$), 가족지지 지각 ($\gamma=.33$, $p<.001$)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가족의사소통의 좋을수록 가족지지 지각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지지 지각이며 부모애착의 설명력은 49.6%이다.

또래애착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가족의사소통 ($\gamma=.49$, $p=.621$), 가족지지 지각 ($\gamma=1.68$, $p=.094$), 지역사회 자원 ($\gamma=-.89$, $p=.373$), 영적지지 추구 ($\gamma=-.28$, $p=.784$)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강인성 ($\gamma=5.79$,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2.6%이다.

내재화 문제는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가족강인성 ($\gamma=.04$, $p=.675$), 가족의사소통 ($\gamma=-.08$, $p=.289$), 가족지지 지각 ($\gamma=.08$, $p=.316$), 또래애착 ($\gamma=-.09$, $p=.113$), 지역사회 자원 ($\gamma=-.07$, $p=.944$), 영적지지 추구 ($\gamma=-.01$, $p=.902$)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 ($\gamma=-.33$, $p<.001$), 부모애착 ($\gamma=-.18$, $p=.004$)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고,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화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아정체감이며 설명력은 22.5%이다.

외현화 문제는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가족강인성($\gamma=.04$, $p=.675$), 가족의사소통($\gamma=-.11$, $p=.289$), 가족지지 지각($\gamma=-.03$, $p=.674$), 또래애착($\gamma=-.09$, $p=.143$), 지역사회 자원($\gamma=.06$, $p=.286$), 영적지지 추구($\gamma=.07$, $p=.210$)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gamma=-.31$, $p<.001$)과 부모애착($\gamma=-.14$, $p=.018$)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고,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모애착이며 외현화 문제의 설명력은 40.8%이다.



Table 7. Parameter estimate and Standardized solution in Hypothesis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 R. (<i>p</i>)	SMC
Ego-identity				.408
Family hardiness	.97(.12)	.64	8.27(<.001)	
Family communication	.21(.08)	.18	2.63(.009)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18(.07)	-.17	-2.45(.014)	
Community support resource	-.07(.04)	-.09	-1.95(.510)	
Spiritual support	-.30(.02)	-.06	-1.32(.185)	
Parents attachment				.496
Family hardiness	.30(.09)	.19	3.54(<.001)	
Family communication	.36(.06)	.29	5.58(<.001)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36(.06)	.33	6.01(<.001)	
Community support resource	-.01(.03)	-.02	-4.17(.676)	
Spiritual support	.01(.02)	.01	.31(.755)	
Peer attachment				.226
Family hardiness	.51(.09)	.38	5.79(<.001)	
Family communication	.03(.07)	.03	.49(.621)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10(.06)	.11	1.68(.094)	
Community support resource	-.03(.03)	-.04	-.89(.373)	
Spiritual support	-.01(.02)	-.01	-.28(.784)	
Internalizing problem				.225
Family hardiness	.03(.07)	.04	.42(.675)	
Family communication	-.04(.04)	-.08	-1.06(.289)	
Spiritual support	.04(.04)	.08	1.00(.316)	
Ego-identity	-.16(.03)	-.33	-4.78(<.001)	
Parent attachment	-.07(.03)	-.18	-2.86(.004)	
Peer attachment	-.05(.03)	-.09	-1.59(.113)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01(.02)	-.01	-.07(.944)	
Community support resource	-.01(.01)	-.01	-.12(.902)	

Table 7. Parameter estimate and Standardized solution in Hypothesis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 R. (<i>p</i>)	SMC
Externalizing problem				.408
Family hardiness	.02(.05)	.04	.42(.675)	
Family communication	.02(.02)	-.11	-1.02(.289)	
Spiritual support	-.05(.03)	-.03	-.42(.674)	
Ego-identity	-.12(.03)	-.31	-4.31(<.001)	
Parent attachment	-.50(.02)	-.14	-2.36(.018)	
Peer attachment	-.40(.03)	-.09	-1.46(.143)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02(.02)	.06	1.07(.286)	
Community support resource	-.01(.01)	.07	1.25(.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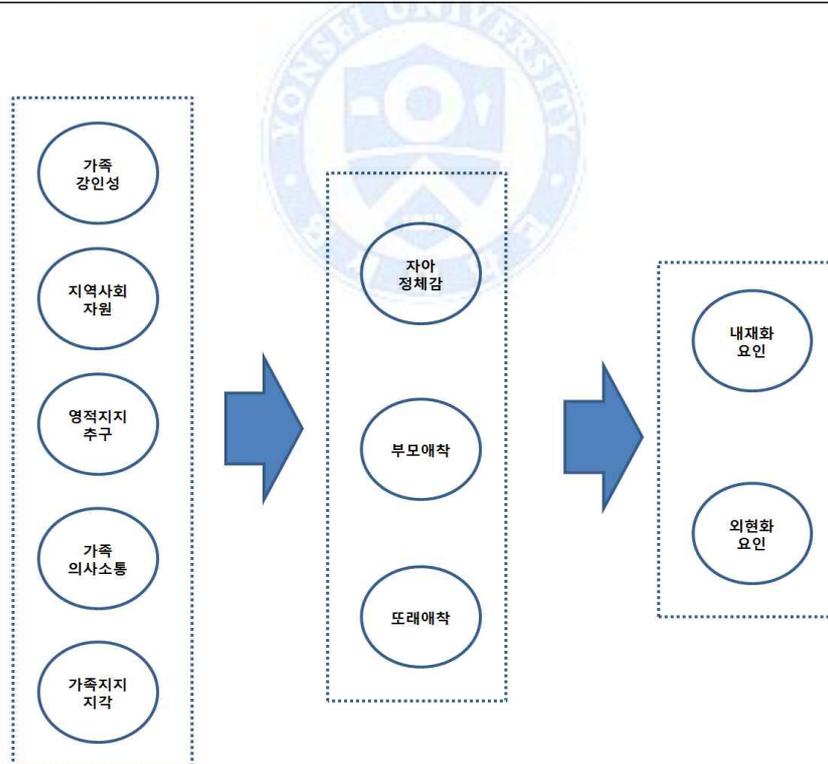


Figure 4. Hypothetical model with path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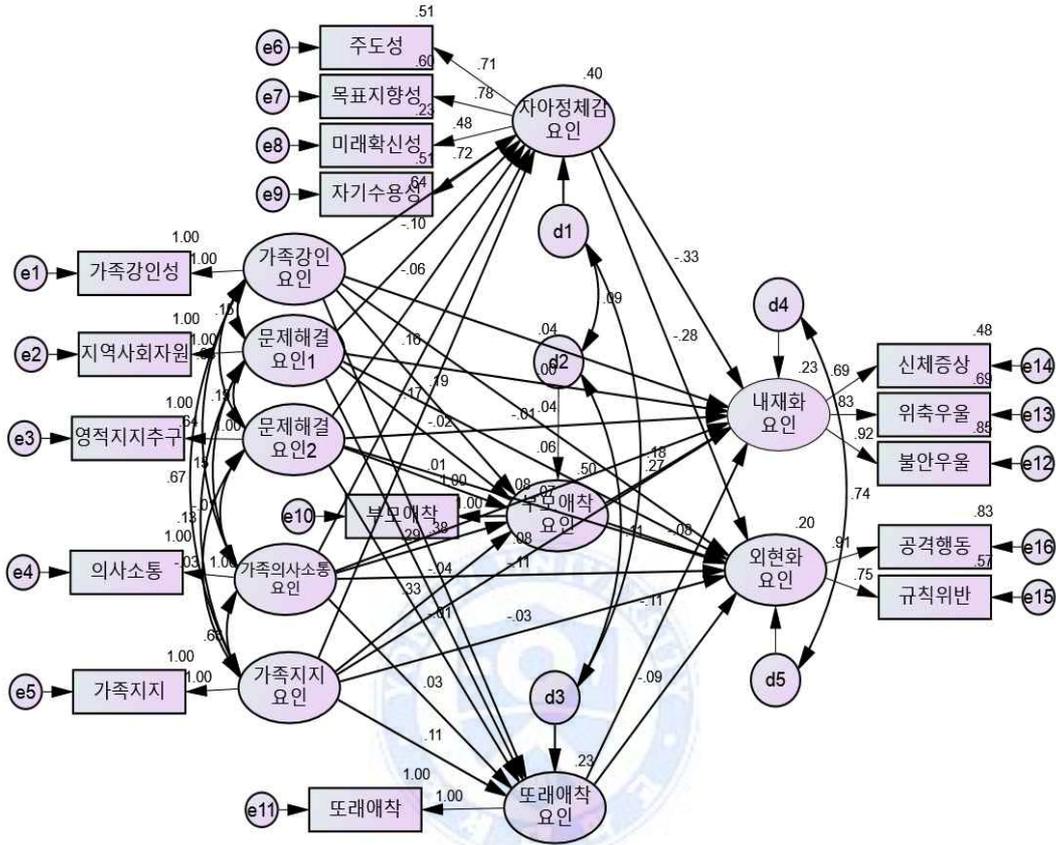


Figure 5. Hypothetic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3. 가설 모형의 효과분석

최종모형에 대한 전체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경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표 7). 간접효과는 두 변수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며(우종필, 2012), Bootstrap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이며, 가족강인성은 직접효과($\gamma=.64, p<.005$), 총 효과($\gamma=.64, p<.005$), 가족의사소통은 직접효과($\gamma=.17, p<.046$), 총 효과($\gamma=.17, p<.046$)가 유의하였다.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가족강인성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지각이며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19, p<.004$), 총 효과($\gamma=.19, p<.004$),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gamma=.29, p<.007$), 총 효과($\gamma=.29, p<.007$), 가족지지지각도 간접효과($\gamma=.33, p<.003$), 총 효과($\gamma=.33, p<.003$)가 유의하였다. 부모애착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가족지지 지각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강인성이다.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33, p<.003$), 총 효과($\gamma=.33, p<.003$)가 유의하였다.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자아정체감, 부모애착이다.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29, p<.004$)와 총 효과($\gamma=-.25, p<.004$)가 유의하였으며,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gamma=-.11, p<.008$)와 총 효과($\gamma=-.19, p<.014$), 자아정체감은 직접효과($\beta=-.33, p<.008$)와 총 효과($\beta=-.33, p<.008$), 부모애착도 직접효과($\beta=-.18, p<.021$)와 총 효과($\beta=-.18, p<.021$)가 유의하였다. 내재화 문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자아정체감이다.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23, p<.004$)와 총 효과($\gamma=-.19, p<.021$),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gamma=-.07, p<.033$)와 총 효과($\gamma=-.18,$

$p=.017$), 자아정체감은 직접효과($\beta=-.28$, $p=.005$)와 총 효과($\beta=-.28$, $p=.005$)에 유의하였다. 외현화 문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다.

Table 8.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Ego-identity			
Family hardiness	.64(.005)		.64(.005)
Family communication	.17(.046)		.17(.046)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18(.064)		-.18(.064)
Community support resource	-.09(.098)		-.09(.098)
Spiritual support	-.06(.264)		-.06(.264)
Parents attachment			
Family hardiness		.19(.004)	.19(.004)
Family communication		.29(.007)	.29(.007)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33(.003)	.33(.003)
Community support resource		-.02(.829)	-.02(.829)
Spiritual support		.01(.717)	.01(.717)
Peer attachment			
Family hardiness		.38(.003)	.38(.003)
Family communication		.03(.694)	.03(.694)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11(.158)	.11(.158)
Community support resource		-.04(.392)	-.04(.392)
Spiritual support		-.01(.847)	-.01(.847)

Table 8.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p</i>)	Indirect effect (<i>p</i>)	Total effect (<i>p</i>)
Externalizing problem			
Family hardiness	.04(.708)	-.23(.004)	-.19(.021)
Family communication	-.11(.156)	-.07(.033)	-.18(.017)
Spiritual support	-.03(.579)	.01(.839)	-.02(.721)
Ego-identity	-.28(.005)		-.28(.005)
Parental attachment	-.09(.328)		-.09(.328)
Peer attachment	-.09(.200)		-.09(.200)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06(.406)	.03(.091)	.09(.134)
Community support resource	.06(.336)	.02(.301)	.08(.199)
Internalizing problem			
Family hardiness	.04(.763)	-.29(.004)	-.25(.004)
Family communication	-.08(.198)	-.11(.008)	-.19(.014)
Spiritual support	.08(.372)	-.01(.784)	.07(.420)
Ego-identity	-.33(.008)		-.33(.008)
Parental attachment	-.18(.021)		-.18(.021)
Peer attachment	-.11(.170)		-.11(.170)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00(.891)	.04(.106)	.04(.573)
Community support resource	.00(.922)	.02(.356)	.02(.765)

F.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아정체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1. ‘가족강인성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은 직접효과($\gamma = .64, p = .005$), 총 효과($\gamma = .64, p =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
- 가설 2.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은 직접효과($\gamma = .17, p = .046$), 총 효과($\gamma = .17, p = .04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
- 가설 3. ‘가족지지 지각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족지지 지각은 직접효과($\gamma = -.18, p = .064$), 총 효과($\gamma = -.18, p = .06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 가설 4. ‘지역사회 자원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지역사회 자원은 직접효과($\gamma = -.09, p = .098$), 총 효과($\gamma = -.09, p = .09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 가설 5. ‘영적지지 추구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영적지지 추구는 직접효과($\gamma = -.06, p = .264$), 총 효과($\gamma = -.06, p = .26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2. 부모애착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6. ‘가족강인성이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19, p=.004$), 총 효과($\gamma=.19, p=.0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부모애착이 높다.
- 가설 7. ‘가족의사소통이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gamma=.29, p=.007$), 총 효과($\gamma=.29, p=.00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이 좋을수록 부모애착이 높다.
- 가설 8. ‘가족지지 지각이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가족지지 지각은 간접효과($\gamma=.33, p=.003$), 총 효과($\gamma=.33,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지지 지각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다.
- 가설 9. ‘지역사회 자원은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지역사회 자원은 간접효과($\gamma=-.02, p=.829$), 총 효과($\gamma=-.02, p=.82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 가설 10. ‘영적지지 추구가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영적지지 추구는 간접효과($\gamma=.01, p=.717$), 총 효과($\gamma=.01, p=.71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3. 또래애착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11. ‘가족강인성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38, p=.003$), 총 효과($\gamma=.38,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또래애착이 높다.

- 가설 12. ‘가족의사소통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gamma = .03, p = .694$), 총 효과($\gamma = .03, p = .69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 가설 13. ‘가족지지 지각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가족지지 지각은 간접효과($\gamma = .11, p = .158$), 총 효과($\gamma = .11, p = .15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 가설 14. ‘지역사회 자원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지역사회 자원은 간접효과($\gamma = -.04, p = .392$), 총 효과($\gamma = -.04, p = .39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 가설 15. ‘영적지지 추구는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영적지지 추구는 간접효과($\gamma = -.13, p = .847$), 총 효과($\gamma = -.01, p = .8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4. 내재화 문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16. ‘가족강인성이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 = -.29, p = .004$), 총 효과($\gamma = -.25, p = .0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많다.
- 가설 17. ‘가족의사소통이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gamma = -.11, p = .008$), 총 효과($\gamma = -.19, p = .0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이 좋지 않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많다.
- 가설 18. ‘가족지지 지각이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가족지지 지각은 직접효과($\gamma = .08, p = .372$), 간접효과($\gamma = -.01, p = .784$), 총 효과($\gamma = .07, p = .42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 가설 19. ‘자아정체감이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자아정체감은 직접효과($\beta = -.33, p = .008$), 총 효과($\beta = .33, p = .00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많다.
- 가설 20. ‘부모애착이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부모애착은 직접효과($\beta = -.18, p = .021$), 총 효과($\beta = -.18, p = .02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많다.
- 가설 21. ‘또래애착이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또래애착은 간접효과($\beta = -.11, p = .170$), 총 효과($\beta = -.11, p = .17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 가설 22. ‘지역사회 자원은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지역사회 자원은 직접효과($\gamma = .00, p = .891$), 간접효과($\gamma = .04, p = .106$), 총 효과($\gamma = .04, p = .57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 가설 23. ‘영적지지 추구가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영적지지 추구가 직접효과($\gamma = .00, p = .922$), 간접효과($\gamma = .02, p = .356$), 총 효과($\gamma = .02, p = .76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5. 외현화 문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 가설 24. ‘가족강인성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은 간접효과($\gamma = -.23, p = .004$), 총 효과($\gamma = -.19, p = .02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강인성이 낮을수록 외현화문제가 많다.
- 가설 25. ‘가족의사소통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

었다.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gamma = -.07$, $p = .033$), 총 효과($\gamma = -.18$, $p = .01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의사소통이 좋지 않을수록 외현화문제가 많다.

가설 26. ‘가족지지 지각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족지지 지각은 직접효과($\gamma = -.03$, $p = .579$), 간접효과($\gamma = .01$, $p = .839$), 총 효과($\gamma = -.02$, $p = .72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27. ‘자아정체감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자아정체감은 직접효과($\beta = -.28$, $p = .005$), 총 효과($\beta = -.28$, $p =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외현화문제가 많다.

가설 28. ‘부모애착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부모애착은 직접효과($\beta = -.09$, $p = .328$), 총 효과($\beta = -.09$, $p = .32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29. ‘또래애착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또래애착은 직접효과($\beta = -.09$, $p = .200$), 총 효과($\beta = -.09$, $p = .2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30. ‘지역사회 자원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지역사회 자원은 직접효과($\gamma = .06$, $p = .406$), 간접효과($\gamma = .03$, $p = .091$), 총 효과($\gamma = .09$, $p = .13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31. ‘영적지지 추구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영적지지 추구는 직접효과($\gamma = .06$, $p = .406$), 간접효과($\gamma = .02$, $p = .301$), 총 효과($\gamma = .08$, $p = .19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9. Hypothetical Testing Results

가설	내 용	채 택여부
가설1	가족강인성 → 자아정체감	채택
가설2	가족의사소통 → 자아정체감	채택
가설3	가족지지 지각 → 자아정체감	기각
가설4	지역사회 자원 → 자아정체감	기각
가설5	영적지지 추구 → 자아정체감	기각
가설6	가족강인성 → 부모애착	채택
가설7	가족의사소통 → 부모애착	채택
가설8	가족지지 지각 → 부모애착	채택
가설9	지역사회 자원 → 부모애착	기각
가설10	영적지지 추구 → 부모애착	기각
가설11	가족강인성 → 또래애착	채택
가설12	가족의사소통 → 또래애착	기각
가설13	가족지지 지각 → 또래애착	기각
가설14	지역사회 자원 → 또래애착	기각
가설15	영적지지 추구 → 또래애착	기각
가설16	가족강인성 → 내재화 문제	채택
가설17	가족의사소통 → 내재화 문제	채택
가설18	가족지지 지각 → 내재화 문제	기각
가설19	자아정체감 → 내재화 문제	채택
가설20	부모애착 → 내재화 문제	채택
가설21	또래애착 → 내재화 문제	기각
가설22	지역사회 자원 → 내재화 문제	기각
가설23	영적지지 추구 → 내재화 문제	기각
가설24	가족강인성 → 외현화 문제	채택
가설25	가족의사소통 → 외현화 문제	채택
가설26	가족지지 지각 → 외현화 문제	기각
가설27	자아정체감 → 외현화 문제	채택
가설28	부모애착 → 외현화 문제	기각
가설29	또래애착 → 외현화 문제	기각
가설30	지역사회 자원 → 외현화 문제	기각
가설31	영적지지 추구 → 외현화 문제	기각

VI. 논 의

최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환경적 요인만을 강조하던 과거에 비해 ‘회복력’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환경의 영향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으로 이루어야 할 자아정체감, 영아기 부터 형성되어온 애착이 부모에서 또래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애착, 또래애착에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모, 또래, 교사 등 특정 관계와의 단편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력 모형을 토대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직, 간접 및 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모형의 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개인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추후 개인변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가족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모형의 적합성,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 가족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 모형의 적합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회복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McCubbin 등(1996)의 회복력 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회복력 요인과 개인변인들의 상호관계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구축, 적합도 및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cCubbin 등(1996)의 가족 회복력 모형에서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처,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을 포함하였고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에서 확인된 개인변인으로 확인된 자아정체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매개변인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효과를 갖는 변수는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이었다. 이 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순이었고 가족강인성과 가족의사소통은 직접적인 경로 없이 간접적으로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변인에 자아정체감, 부모애착의 개인변인에 의해 22.5%, 40.8%의 설명력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변인인 매개효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모형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이며 이것이 개인의 행동방향과 사회적 적응을 결정한다(김명화, 2006). 결국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자아정체감이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중요한 효과로 나타났고(강석기, 2006; 김재환, 2004; 문은미 & 최명선, 2008; 배정이, 2008; 이상호, 2011; Boulter, 2002, Laspley, 2002) 자아정체감이 성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김명화, 2006). 또한 학교생활 적응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적응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김명화 & 한성숙; 2005, 문은식, 2015; 원상숙, 2013; 정종권, 1998) 이들 청소년들이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발달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인 자아정체감을 높여주는 중재방안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자아정체감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가정환경 역경에 처한 일반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우울과 불안에 빠지지

않으며,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도 일으키지 않는 주요한 보호요소로 작용하였으며(신현숙, 2003), 청소년의 애착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문영숙 & 한수정, 2009; 이소희 외, 2001)에서 의존할 수 있는 정도와 친밀한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가 낮고, 거부당하는데 대한 불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개입, 애착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높은 회복력에 기여하고(나선영 & 안미현, 2011; 조희금 & 민하영, 2012; Miller-Lewis, 2013), 또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고(박태희 & 이경희, 2014; 이미현, 2014; 이소희 & 허만세, 2014; 임소연 외, 2012)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성숙도,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이 부모애착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게 보고하였다(금지현, 2012; 노미화 외, 2015; 김승진, 2015) 즉,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출생에서부터 형성된 부모애착이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춘기를 겪는 갈등상황에서 부모애착은 여전히 보호요인과 안전기지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 증진을 통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 적용에서 부모애착에 대한 것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강인성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변인을 매개한 간접효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인 소아암 환자 가족(박인숙, 2001; 박인숙 등, 2001; 심미경, 2004), 미숙아 부모(전창순, 2011), 정신 지체 장애인 가족(탁영란 외, 2003), 간질아동의 가족(송자경, 2003), 입원 환자 가족(유양, 2012; 유양 등 2012), 만성정신분열병 환자가족(임희수, 2010) 및 정신질환자 가족(Greeff et al., 2006)에서는 가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 회복력인자로 제시되었다. 가족강인성은 가족의 내적인 힘과 내구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활사건과 곤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내재적 통제와 함께 가족의 이익과 생산을 증

가시키는 요인이며 스트레스 상황을 조정하고 관리해 나감에 있어 능동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가족강인성은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며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조정과 적응을 촉진시킨다(송자경, 2003). 그러므로 가족강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회복력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강인성에 대한 것이 직접적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로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므로 가족강인성을 회복력인자로 가족 회복력과 개인변인을 매개로 하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족의사소통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개인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인 소아암 가족(심미경, 2004), 이혼가정 아동(신성희, 2006)과 만성정신분열병 환자가족(임희수, 2010)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Cubbin 외(1994)의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와 기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이 모두 활발한 문화와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문화에서 의사소통의 구조가 비교적 원활하지 못하거나 절제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족의사소통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적극 활용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 회복력 요인 중에 개인 변인의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 요인들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cCubbin(1996)의 가족 회복력 모델은 주로 가족 중심의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었다(박인숙, 2001; 박인숙 등, 2001; 심미경, 2004; 유양, 2012; 송자경, 2003; 신성

회, 2006; 유양, 2012; 유양 등 2012; 탁영란 외, 2003; 임희수, 2010; 전창순, 2011; Greeff et al., 2006).

하지만, 본 연구는 McCubbin 등(2006)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근거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모형을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로 검증하였다. 발달 위기상황에 있는 정상 성장발달 과정 중인 청소년 대상의 가족 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개인변인 매개효과와 가족 회복력 모형의 확대 적용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McCubbin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지지하며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직접,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가족 회복력 모형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간명하고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와 가족중심간호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B.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이론, 간호연구 및 간호실무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McCubbin 등(1996)의 회복력 모형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발달적 위기상황에서 어떤 회복력 요인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족 회복력 모형을 요인간의 관계와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개인변인의 매개효과와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복력 모형에서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중요성과 유용성을 다시금 확인

하여 회복력 이론의 확대적용과 가족중심 간호이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회복력 요인과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를 각각의 변수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들을 근거로 하여 경로를 구성하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추론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식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가족 회복력의 경로분석 및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 간호실무 측면

발달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갈등과 문제양상을 학교보건교사나 청소년 담당 간호사가 상담할 때 가족회복력 요소와 개인변인을 충분히 고려한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여 적응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실무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C.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 개념적 기틀로 활용된 McCubbin 등(1996)의 가족 회복력 모형은 인간의 행위 변화에 있어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한 모형으로 각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들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설적 모형을 회복력 요인 중심으로 제

시하고,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서 확인된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각 요인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와 관련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에 전문가 검토와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지만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측정오차의 문제는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대상자의 무응답으로 인한 무응답오차(nonresponse error)와 관련한 문제이다. 회수율이 낮을 경우 선택 치우침(selec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도구 중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사항을 K-YSR 요인별 전체 118문항 중에서 일부인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63문항만 발췌하여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을 확대 해석하기 어려우며, 특정 문제에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대상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학교에 고지를 하여 상담 및 학교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McCubbin 등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기초로 구축된 구조모형을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McCubbin 등(1996)의 가족 회복력 모형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가설적 설명모형을 구축하고, 횡단적 조사연구를 통해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로를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 5개와 5개의 내생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생변수는 가족강인성, 지역 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등이며, 내생변수는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인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등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중학교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고 D 광역시와 G시에 재학 중인 중학생 2, 3학년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여 총 40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승인번호 간대 IRB 2015-0029-1)의 승인 후 연구자가 연구 참여의 자율적 선택 및 중지,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설명문과 연구 참여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와 대상자의 동의 후에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회수되지 않았거나 설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총 382부의 자료를 SPSS WIN 20.0,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델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χ^2 , χ^2/df , GFI, RMSEA, NNFI, CFI 등이 양호하게 나타나 연구모델이 표본자료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모델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 가설적 모형에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경로 31개 가설 중 13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자아정체감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지역사회 자원 ($\gamma = -1.95, p = .510$), 영적지지 추구 ($\gamma = -1.32, p = .18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가족강인성 ($\gamma = .64, p < .001$), 가족의사소통 ($\gamma = .18, p < .001$), 가족지지 지각 ($\gamma = -.17, p < .001$)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가족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가족지지 지각이 낮을수록 자아정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강인성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의 설명력은 40.8%이다.

부모애착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지역사회 자원 ($\gamma = -4.17, p = .676$), 영적지지 추구 ($\gamma = .31, p = .755$)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강인성 ($\gamma = .19, p < .001$), 가족의사소통 ($\gamma = .29, p < .001$), 가족지지 지각 ($\gamma = .33, p < .001$)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가족의사소통의 좋을수록 가족지지 지각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지지 지각이며 부모애착의 설명력은 49.6%이다.

또래애착은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가족의사소통 ($\gamma = .49, p = .621$), 가족지지 지각 ($\gamma = 1.68, p = .094$), 지역사회 자원 ($\gamma = -.89, p = .373$), 영적지지 추구 ($\gamma = -.28, p = .784$)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강인성 ($\gamma = 5.79, p < .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강인성이 강할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2.6%이다.

내재화 문제는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가족강인성($\gamma=.04$, $p=.675$), 가족의사소통($\gamma=-.08$, $p=.289$), 가족지지 지각($\gamma=.08$, $p=.316$), 또래애착($\gamma=-.09$, $p=.113$), 지역 사회 자원($\gamma=-.07$, $p=.944$), 영적지지 추구($\gamma=-.01$, $p=.902$)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gamma=-.33$, $p<.001$), 부모애착($\gamma=-.18$, $p=.004$)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높고,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화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아정체감이며 설명력은 22.5%이다.

외현화 문제는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지역사회 자원, 영적지지 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가족강인성($\gamma=.04$, $p=.675$), 가족의사소통($\gamma=-.11$, $p=.289$), 가족지지 지각($\gamma=-.03$, $p=.674$), 또래애착($\gamma=-.09$, $p=.143$), 지역사회 자원($\gamma=.06$, $p=.286$), 영적지지 추구($\gamma=.07$, $p=.210$)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gamma=-.31$, $p<.001$)과 부모애착($\gamma=-.14$, $p=.018$)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고,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외현화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모애착이며 외현화 문제의 설명력은 40.8%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간호중재는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자아정체감, 부모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이론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지각,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등 다른 가족 회복력 요인을 포함한 모형 검증을 추후연구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가 시행된 경북, 대구 지역은 지방 특색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도 회복력에 대한 영향도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교차적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정상 성장 발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력 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내재화와 외현화 요인만 발췌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K-YSR 전체 문항을 이용한 객관적 평가를 포함한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권종선, 오경옥 (201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정도에 따른 극복력 영향요인. *스트레스연구*, 18(2), 187-198.
- 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한구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심리사회적 발달 관계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2), 95-144.
- 강해자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 정신건강과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부산.
- 김명화 & 한성숙 (2005).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적응에 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1(3), 1-13.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울.
- 김민정 & 신성만 (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11-737.
- 김명화 (2006). MBTI 자기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2(2), 233-246.
- 김묘정 (2005). *한 부모 가족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
- 김보성, 박명실, 민윤기 (2009).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5), 2517-2526.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부산.
- 김승경 (2004).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간의 경로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서울.
- 김승진 (2015).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이성관계의 매개적 역할*.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 서울.
- 김정미 (2010). 남녀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완벽주의와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 차이 검증. *상담학연구*, 11(2), 121-13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윤희 (2015). *남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혜련, 박수경 (2011).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청소년의 자녀역할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9(4), 37-50.
- 금지현 (2012).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3), 5-26.
- 권오숙, 문성호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31-46.
- 권혜수 (2002).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남영옥, 김재한 (2003). 알콜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자녀의 적응유연성. *청소년학 연구*, 10(1), 11-20.
-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문영숙 & 한수정 (2009). 중학생의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302-310.

- 문은미 &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2), 103-122.
- 문은식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인간관계 및 심리적 변인과 학교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 *교육종합연구*, 10(4), 483-501.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인간발달지*, 22(1), 21-35.
- 박민자 & 황기아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43-52.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인숙 (2001). *암환아 가족의 가치관, 강인성과 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서울.
- 박진아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 전략*.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서울.
- 박재산, 이미순, 문재우 (2010).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3(1), 41-52.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박태희 & 이경희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3), 353-361.
- 반의숙 (2009).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고나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충북.
- 방정환어린이 재단 (2014). *2014년도 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배병렬 (2004). *구조방정식모델을 위한 SIMPLIS 활용과 실습*. 서울: 청목 출판

- 사.
- 배정미 (2008).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8(3), 454-464.
- 배정애, 배정우, 천성문 (2006).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9(1), 53-68
- 이소희, 손석한, 노경선, 허묘현, 정현옥,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23-35.
- 신성희 (2006). *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모형구축*.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서울.
- 신종임 (2010).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송자경 (2003). *간질아동과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서울.
- 송현옥 (200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신현숙 (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11(2), 71-84.
- 신혜원 (2005). *암환아와 어머니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서울.
- 심미경 (2004). *소아암 환아 가족의 회복력모형 검증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서울.
- 양혜영 (2004). 위기가정환경을 설명하는 중다변인모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124-136.
-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2013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자, 김영아 (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YSR 청소년

- 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 HUNO
- 유성경 (1999). 적응유연성 발달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청소년 상담연구*, 7, 26-40.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이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 189-206.
- 이경남 (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2, 37-52.
- 이경옥 (2006). *문제음주자 부인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도.
- 이 난(2005). 대학생의 리더십 집단활동이 리더십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2), 387-399.
- 이미현 (2014). 청소년의 성체 따른 환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87-112.
- 이보람, 박혜준, 이강이 (2013). 청소년의 만성질환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Korean J. of Child Studies*, 34(5), 127-144.
- 이상호 (2011).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행동연구*, 16, 161-185.
- 이서원, 장용언 (2011).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족 응집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 연구*, 18(1), 111-136.
- 이순희 & 허만세 (2014).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학 교사회복지*, 27, 253-274.
- 이정미 (2005). *학급단위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79-85.

- 이재민, 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 33, 61-84.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이혜순 (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가족기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6(4), 297-303.
- 임소연, 채명옥, 이자형. (2012). 청소년의 기질, 부모애착과 우울.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8(4), 207-213.
- 임희수 (2010). *만성정신분열병 환자 가족극복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서울.
- 오경자, 이해련 (1990).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평가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신경정신의학* 29(2), 452-462.
- 오승아, 이양희 (2001). 장애아동가족의 복원모델 연구. *아동학회지*, 22(2), 113-132.
- 오재우 (2013).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 회복력 모형 검증*.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대전.
- 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1), 35-43.
- 옥 정 (1997).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원상숙 (2013).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부적응-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상북도.
- 원정숙, 신현숙 (2008).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동서간호학연구지*, 14(2), 60-66.

- 유양(2012). *입원 환아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모형검증 : 중국 입원환아 가족 대상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대전.
- 전미영 (1996).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복원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서울.
- 전재일, 천수혜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4(2), 163-187.
- 전창순 (2011).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부모가 인지한 스트레스, 가족 복원력 및 가족 적응*.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서울.
- 정동화 (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탄력성. *교육문제 연구*, 9.
- 정옥분 (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종권 (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대구.
- 정태연, 이윤미 (2005). 어머니의 자녀교육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가지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61-80.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21-30.
- 조결자, 이명희 (2010).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6(2), 120-127.
- 조기행 (2010). *태권도경기 참가에 따른 자아정체감, 공동체 의식 및 스포츠 사회화의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서울.
- 조성암 (2004). *이혼가정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차이*. 국내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조희금, 민하영 (2012).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자

- 기억량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17-27.
- 지수경 (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내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탁영란, 윤이화, 전영신, 안지연 (2003). 소아암 환자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9(1), 9-17.
- 한상철 (2009).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아동학과, 서울.
- 차유림 (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
- 최진희 (1999). *아동이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울.
- 황혜원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1-26.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 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tonovsky, A. (1987). *Unraveling the mystery of health. How people manage stress and stay well*. San Francisco: Jossey-Bass.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nzies, K., & Mychasiuk, R. (2009). Fostering family resiliency: a review of the key protective factor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4*, 103-114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6-447.
-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 78-117.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owlby J. (1969). *Attachment. Attachment and loss: Vol. 1.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en, M. (1978).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ook, J. S., Brook, D. W., Gordon, A. S., Whiteman, M., & Cohen, P. (1990). The psychosocial etiology of adolescent drug use: A family interactional approach.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16*(2), 111-26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Fit*.

- In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edited by Bollen, K. A. and Long, J. S., 136-162. Beverly Hills, CA:Sage.
- Buh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al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hassin, L. (1984).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abuse. *Advances in Child Behavior Analysis and Therapy*, *3*, 99-152.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llins, W. A., & Repinski, D. J.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 Davey, M., Eaker, D. G., & Walters, L. H., (2003). Resilience processes in adolescents: Personality profiles, self-worth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18*(4), 347-362.
- Dubow, E. F.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 52-64.
- Egeland, B., &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17-528.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rbarino, J. (1999). *Lost Boys: Why our Sons Turn Violent and How We Can Save The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eran, J. M. (2001). *Coping with crisis: Social capital and the resilience of rural livelihood in northern Thaila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Greeff, A. B., Vansteenwegen, A. & Ide, M., (2006). Resiliency in Families with a Member with a Psychological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4*, 285-300.

- Hair, J.M bLACK, B, Babin, B., Anderson, R.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Katz, S. (2002). Gender differences in adapting to a child's chronic illness: A causal model.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7*, 257-268.
- Kline, R. B.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in, S. I. (2000). Coping and adaptation in family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Exceptional Children, 66*, 201-217.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ndleco B. L., Peery J. C. (2000).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resilience in children . *The Journal of Child Adolescence Psychiatric Nursing. 13*, 99-111.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2), 227-238.
- Masten, A. S. (2004). *Regulatory processes, risk and resilience in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N. Y. Academic Science 1021, 310-319.

- McCubbin, M. A., McCubbin, H. I. & Tompson, A. I. (1983). *Family Hardiness Index(FHI)*.
-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3). *Families coping with illnes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C.B. Danielon, B. H., Bissell, & P. W., Fry. Families, health & Illness: Perspectives, on coping and intervention, 21-63. St. Louise: Mosby Year Book, Inc.
- McCubbin, H. I., Olson, D. & Larsen, A. (1981).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F-COPES). In McCubbin, H. I.,
- McCubbin, H. I., Tompson, A. I. & McCubbin, M. A. (1996). *Family asse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1), 7-37.
- Moss, R. H., & Moos, B. (1986). *Family Environment Scale Manual(2nd)*.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Miller-Lewis, L. R., Searle, A. K., Sawyer, M. G., Baghurst, P. A., & Hedley, D., (2013). Resource factors for mental health resilience in early childhood: An analysis with multiple methodologies.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7(6), 1-23.
- Nichols, M. P., & Schwartz, R. C. (1991). Family therapy: Concept and methods. Boston: Allyn and Bacon.
- Nunnally, J. C. (1987).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 Olson, D. H. (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 Circumplex Model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Cohesion &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7.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O'Koon J. (1997).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image. *Adolescence*, 32(126), 471-482.
- Tompson, A. I. & McCubbin, M. A. (1996),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Inventory for research and practice*, 455-507.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Tugade, M. M. (2001). *Positive emotions and resilience: Exploring subjective, cognitive, and physiological consequ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Verhaeghe, S., Defloor, T., & Grypdonck, M. (2005). Stress and coping among families of patient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 1004-1012.
- Walsh, F.(2003). Family resilience: a framework for clinical practice *Family Process*. 42(1), 1-15.
- Yeh, C. H Lee, T., Chen, M., & Li, W. (2000). Adaptation process of parents of pediatric oncology patients. *Pediatric Hematology and Oncology*, 17, 119-131.

부록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승인서

version 2014. 4. 1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결과 통보서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 nursingirb@yuhs.ac Fax : 02-392-5440

심 의 번 호	간대 IRB 2015-0029-1	발 송 일 자	2015.10.8	
심 의 종 류	<input type="checkbox"/> 신규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심의 <input type="checkbox"/> 변경심의 <input type="checkbox"/> 지속심의 <input type="checkbox"/> 중료 및 결과보고 <input type="checkbox"/> 기타심의			
연 구 과 제 명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적응 구조모형			
연 구 자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생	구정아
연 구 종 류 (중복 표시 가능)	중재 연구	<input type="checkbox"/> 의약품/의료기기 이용 <input type="checkbox"/>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input type="checkbox"/> 화장품/시술법 등 사용 <input type="checkbox"/> 음식/건강기능식품 등 섭취 <input type="checkbox"/> 소음, 물리적 자극 등 환경 조작 <input type="checkbox"/> 기타(모바일 기기 이용)		
		<input type="checkbox"/> 비침습적 <input type="checkbox"/> 침습적		
		상호작용 연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문지 작성 <input type="checkbox"/> 인터뷰/면담 <input type="checkbox"/> 행동관찰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 구 계 획 기 간	IRB 승인 일 이후 ~ 2015년 12월 31일			
심 의 일 자	2015년 10월 7일			
심 의 결 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시정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중지 또는 보류			
연 구 승 인 유효 기 간	2015년 10월 8일 ~ 2015년 12월 31일			
심 의 의 견	연구계획서의 보완이 잘 이루어졌고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충족하여 승인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과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지 않은 계획서에 대한 신규심의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이내의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이미 승인된 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후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심의를 신청하여 한다. 계획서의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서 승인되기 전까지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 및 결과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부록 2. 대상자 설명문

연구대상자 설명문

1. 연구 제목

가족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개인변인의 매개효과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설적 모형을 가족 회복력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각 요인들이 청소년 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습니다.

3. 연구 대상자 수 및 연구 기간

본 연구는 총 40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2015년 10월 1일 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선정기준은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남녀 청소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입니다.

둘째, 학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연구 방법

· 사용되는 도구로는 인쇄된 설문지로 회복력 요인으로 가족요인인 가족강인성 20문항, 문제해결대응전략 8문항, 가족 의사소통 10문항, 사회적 지지 8문항과 개인요인으로 자기정체감 23문항, 부모애착 25문항, 또래애착 25문항이며, 청소년의 적응 61문항과 일반적 사항 5문항으로 총 1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대상자의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비확률적 표집 중 편의 표출을 활용합니다.

연구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약 20-25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 준수 사항으로는 본 설문지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므로 옆 친구와 의논할 필요가 없으며 성의껏 본인의 느낌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회복력과 개인회복력 요인이 자아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청소년 적응의 상호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장차 청소년들의 적응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의 근거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6. 연구 위험성

본 연구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므로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적용하여 판단하기는 제한적 입니다.

7. 연구대상자 보호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수집된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 연구에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연구 참여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9.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른 발생하는 비용 및 보상

설문지를 다 작성해주신 학생에게는 답례품으로 3천원 상당의 삼색 볼펜을 제공한다.

10. 연구책임자 연락처

-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자 성명 : 구정아
 - 연구자 주소 : 120-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연구자 전화번호 : 010-****-**** (24시간 연락처)

1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연구입니다.
 -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2-2227-7909 / nursingirb@yuhs.ac

부록 3. 대상자 동의서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제목] 가족 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개인변인의 매개효과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기밀성 및 익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이 정보가 향후 기타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연구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구 정 아(서명)
	연락처	010-****-****			

(이하 해당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으면 삭제 요망)

법정 대리인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관 계				

부록 4.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구 정아입니다.

본 연구는 "**가족회복력에 근거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개인변인의 매개효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회복력 요인을 개인변인의 매개효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결과는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25분 정도이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잘 맞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옆 친구의 권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를 다 작성해주신 학생에게는 답례품으로 볼펜을 제공합니다.

설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자 구 정아 드림(010-****-****)

*** 다음은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주세요.**

질 문 내 용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희망을 갖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가족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아무도 그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1	2	3	4
4.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언젠가 좋은 일도 있으리라고 믿는다.	1	2	3	4
5. 큰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장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1	2	3	4
6. 어려운 시기도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7. 의견이 항상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필요할 때면 서로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8. 또 다른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족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9. 한 가족으로서 힘을 모아 함께 일한다면 일이 보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10. 인생이 따분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무슨 일이든지 함께 애쓰고 서로 돕는다.	1	2	3	4
12. 일을 계획할 때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시도한다.	1	2	3	4
13. 서로의 문제, 아픔, 그리고 두려움 등을 잘 들어준다.	1	2	3	4
14.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겹다.	1	2	3	4
15. 서로에게 새로운 일이나 경험을 해보도록 격려한다.	1	2	3	4
16.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외출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17.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서로 격려한다.	1	2	3	4
18.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1	2	3	4
19. 불행한 일은 대부분 운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는다.	1	2	3	4
20. 우리의 일생이 우연이나 운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 다음은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주세요.**

질 문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다른 가족으로부터 정보나 조언을 얻고자 한다.	1	2	3	4	5
2. 우리와 같은 상황의 가족을 돕기 위한 사회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구한다.	1	2	3	4	5
3.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나 전문상담을 구한다.	1	2	3	4	5
4. 교회, 절 등의 예배나 예불에 참여한다.	1	2	3	4	5
5. 교회나 절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1	2	3	4	5
6.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1	2	3	4	5
7. 신앙을 갖는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마다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질 문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의 생각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2. 부모님은 늘 내 말을 잘 들어주신다.	1	2	3	4
3.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때가 있다.	1	2	3	4
4.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내 기분이 어떤지 아신다.	1	2	3	4
5.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1	2	3	4
6. 나는 부모님과 말할 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마음 편하다.	1	2	3	4
7. 부모님은 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신다.	1	2	3	4
8. 부모님은 내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신다.	1	2	3	4
9.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1	2	3	4
10. 부모님은 내게 화가 나면 창피를 주신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질 문 내 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2.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3.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1	2	3	4
4.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	2	3	4
5.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	2	3	4
6.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 같다.	1	2	3	4
7.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8.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 번호에 ○표 해주세요.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다.	1	2	3	4	5
2.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거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5.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	1	2	3	4	5
7.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끈다.	1	2	3	4	5
9.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다.	1	2	3	4	5
10.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1	2	3	4	5
11.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1	2	3	4	5
12. 나는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	1	2	3	4	5
13. 나는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게 될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나의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17.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다.	1	2	3	4	5
18.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1	2	3	4	5
21.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1	2	3	4	5
22.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언동에 영향 받기 쉽다.	1	2	3	4	5
23.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또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돌봐 주시는 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서 현재 여러분의 느낌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질문 내용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가끔	자주	항상 그렇다
1. 우리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주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4. 나의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5. 만약 부모님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서 현재 여러분의 느낌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드물 게	가끔	자주	항상 그렇 다
1. 내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2.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린다.	1	2	3	4	5
3.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1	2	3	4	5
4. 친구들과 함께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1	2	3	4	5
5. 내게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6. 나의 친구들은 나를 이해한다.	1	2	3	4	5
7. 내 친구들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1	2	3	4	5
8. 내 친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	2	3	4	5
10. 내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11.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치 혼자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1	2	3	4	5
13.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내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1	2	3	4	5
15.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내 친구들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17.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염려해 준다.	1	2	3	4	5
18. 나는 내 친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19. 나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내 친구들을 신뢰한다.	1	2	3	4	5
21.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1	2	3	4	5
22.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1	2	3	4	5
23. 나의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	1	2	3	4	5
24. 나는 나의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1	2	3	4	5
25. 만약 내 친구들이 나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 가지 행동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각 문항을 하나씩 읽어 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자기 자신이 그 문항의 행동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없다면 '0'에 ○표해 주십시오.

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1	나는 부모님의 허락없이 술을 마신다. (구체적 내용:)	0	1	2
2	말다툼을 많이 한다.	0	1	2
3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0	1	2
4	잘 운다.	0	1	2
5	남에게 못되게 군다.	0	1	2
6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0	1	2
7	내 물건을 부순다.	0	1	2
8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9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	0	1	2
10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11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0	1	2
12	나는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0	1	2
13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가 두렵다.	0	1	2
14	학교에 가는 것이 겁난다.	0	1	2
15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0	1	2
16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느낀다.	0	1	2
17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0	1	2
18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0	1	2
19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20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	0	1	2
21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22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0	1	2
23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0	1	2
24	약물을 끈다.	0	1	2
25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0	1	2
26	어지럼증이 있다.	0	1	2
27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28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피곤함을 느낀다.	0	1	2
	뚜렷한 의학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0	1	2
29	a.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	0	1	2
	b. 두통	0	1	2
	c. 메스꺼움	0	1	2
	d. 눈의 이상(안경으로 교정된 문제는 제외) (구체적 내용:)	0	1	2
	e.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0	1	2
	f. 배앓이 혹은 복통	0	1	2
	g. 구토	0	1	2

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30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31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32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33	가출한다.	0	1	2
34	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35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0	1	2
36	나는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거나 쉽게 무안해한다.	0	1	2
37	불을 지른다.	0	1	2
38	나는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소심하다.	0	1	2
39	우리 집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0	1	2
40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0	1	2
41	고집이 세다.	0	1	2
42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43	나는 의심이 많다.	0	1	2
44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0	1	2
45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0	1	2
46	남을 잘 놀린다.	0	1	2
47	나는 성미가 급하다	0	1	2
48	성(sex)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0	1	2
49	남을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0	1	2
50	나는 담배를 피운다.	0	1	2
51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0	1	2
52	기운이 별로 없다.	0	1	2
53	나는 불행하거나 슬프고 우울하다.	0	1	2
54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0	1	2
55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술이나 담배는 제외) (구체적 내용:)	0	1	2
56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57	나는 걱정이 많다.	0	1	2

※ 다음은 여러분 개인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잘 읽고 빠짐없이 답해주십시오.

1. 성별 : 남 _____ , 여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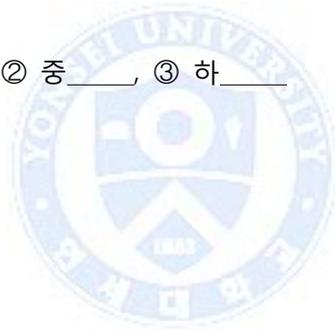
2. 학년 : 2학년 _____, 3학년 _____

3. 형제자매의 수는 ? :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해주세요.

① 엄마 ② 아빠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새아빠 ⑥ 새엄마 ⑦ 형/오빠 ⑧ 누나/
언니 ⑨ 동생 ⑩ 기타 ()

5. 학교성적은 ? ① 상 _____, ② 중 _____, ③ 하 _____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설문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dolescence's Psychological Adaptation based on family resilience : mediation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Gu, Jeung Ah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a structural model for adolescence's psychological adaptation based on family resilience :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A hypothetical model wa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exogenous variables of hypothetical model was the family hardiness, family communication,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community support resource, spiritual support effort, self identity,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Data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12, 2015 to October 19, 2015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sample was 382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province and Gumi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IBM SPSS Statistics 20.0 for descriptive data and Amos 20.0 Win program for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e overall fitness indices of hypothetical model were showed a higher degree of compatibility with the empirical data.

The hypothesis that self-identity are directly influenced by family hardiness was supported.

These finding suggest that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s for adolescence and their family should focus on family resilience and adolescence's adaptation.



Key words : family resilience, individual factor, adolescence's adaptation, SEM

Adolescence's Psycho-Social Adaptation Based on Family Resilience :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Gu Jeung Ah
Departmen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Adolescents in Korea have been in the lowest level of satisfaction in lives and subjective happiness for the past few year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s they experienced education system focused on college entrance and stress from uniform but competitive academic curriculum (White Paper on Adolescents, 2011). This was related to maladaptation of adolescents representing that more than 60% of them suffered from stress. In addition, both stress and depression have increased as students advanced in higher grades as shown that 25.2% of male students and 37.1% of female students were turned out to experience depression. 13.1% of male students and 20.4% of female students were shown to experience of coming up with an idea of committing suicide. Also, suicide ideation was turned out to be the second highest among factors for causing adolescents to die next to diseases (Bang Jeong-hwan Educational Foundation, 2014). Hereupon, they show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Due to aforementioned results, failure of adaptation among adolescents might cause issues includ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e (Kim Yoon-hye, 2015). Besides distracted attitude and lowered concentration because of maladaptation in school life and other types of maladjusted behaviors led from accumulated hostility and a sense of failure with failing academic grades, they tend to cause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social isolation, depression, a sense of alienation, and frustration other than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s. In addition, they are sometimes led to academic drop-out(Bae Jeong-i, 2008).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ausal relationship of individual factors that influenced on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based on Family Resilience Theory (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as a holistic approach made on adaptation phenomena and intende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model for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in Korea by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is regarded to be meaningful that it provides knowledge in a level for both individuals and family members to expand a horizon of an understanding and to adjust well by including all the individual and family resilience with an approach and attempt in the perspective of resilience as a positive effort for prevent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of adolescents in advance who experienced various conflict-related situations and stress in a course of growth and development; develops actual nursing intervention for improving adaptation of adolescents; prevents health issues of adolescents; and enhance health conditions.

Objective of Study

The objective of study is to suggest hypothetical models that can explain and predict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based on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et al., (1996) and to clarify how each of the factor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s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Detailed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tudy aims to establish a hypothetical model about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based on family resilience.

Secondly, the study aims to verify an appropriateness of hypothetical models and actual data.

Third, the study aims to identify direct and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variables that influence on adaptation of adolescents and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and intensity of variables.

Conceptual Framework and Hypothetical model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constructed based on individual mediating factor and family resilience factors of children (McCubbin et al., 1996)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researches to confirm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variables that influence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as shown in Fig. 1 and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silience from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et al., (1996) indicates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in family system that contains elements such as family hardiness, problem-solving, and community resource support and also means the interaction of these elements. In other words, power of family, coping behaviors conducted by a family, and resource of social support in the level of individuals,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are included. Problem-solving is newly added with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and are hence divided into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Therefore, family hardiness, problem-solving, family communication, and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which were recognized by adolescents, were regarded as family resilience factors in this study. Also, the theore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y setting that the mediator variables including ego-identity,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confirmed as individual mediating factors in the literature review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as a dependent variable.

Hypothetical Model

The hypothetical model in this study is comprised of 5 exogenous variables and another 5 endogenous variables. The exogenous variables include family hardiness, spiritual support, community resources support, family communication, and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while endogenous variables are ego-identity,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Study Method

Based on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et al., (1996)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hypothetical mode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family resilience factors (family hardiness, family communication,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spiritual support and community resources support), individual factors as mediating factors (ego-identity,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and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dentifies routes, and verifies hypotheses in order to explain and predict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Subjects of the Study

Targeted population in this study was a group of all the 2nd and 3rd graders in the middle school who reside in Korea as of 2015, while approximate population included total 400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2nd and 3rd grades attending 4 general middle school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and the city of G in Gyeongbuk. Subjects were 2nd and 3rd graders in middle schools who understood the objectives of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it on total 400 students in 2 male and 2 female middle schools through convenient sampling. Data from total 382 students were used in this study.

Study Tools

Tools of this study were total 186 questions with 20 questions for family hardiness, 3 questions for spiritual support, 4 questions for community resources support, 10 questions for family communication, and 8 questions for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as family resilience factors as well as 23 questions for ego-identity, 25 questions for parental attachment, and 25 questions for peer attachment as individual mediating factors. Also, 63 questions related to issues of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and 5 general questions were included.

Methods and Procedures of Data Collection

This study was appro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Yonsei University (IRB approval number: Department of Nursing IRB 2015-0029-1) followed by proceeding the procedures of data collection. The investigation period of this study was from October 12th to 19th in 2015. Time consumed for filling out the questionnaires was from 20 to 25 minutes. Ball point pens manufactured to be inserted in books were provided as a return-present to subjects of this study after filling out questions.

Method of Data Analysis

The data collected for verification of research subjects and hypotheses in this study were analyzed by using SPSS Program 20.0 and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0.0, and detailed methods are as follows.

-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on variables in the study, and correlation of variables in the study were analyzed by using Pearson correlation, while reliability of tools was analyzed *Cronbach's α* and multivariate multicollinearity.
- 2)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conducted for verification of appropriateness of hypothesis model and research hypotheses.
- 3)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hypothesis model of the study was appropriate in dat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conducted for verification of hypothesis model established by literature review, while maximum likelihood (ML) which assumes multivariate normality was used. In addition, χ^2/df , GFI, and RMSEA were used to analyze th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hypothesis model and modified model.

Study Results

There were total 400 participants in this study, but only 382 of them responded all the questions.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shown in the table 1. As for gender distribution, the number of female was high representing 190 male students (49.7%) and 192 female students (50.3%). As for grade distribution, there were 196 2nd graders (51.3%) and 186 3rd graders (48.7%). As for academic performance distribution, there were 96 participants responding on the 'high' (25.1%), while 204 of them responded as 'intermediate' (53.9%), and 80 of them responded as 'low' (20.9%). As for the number of siblings, 42 of them were turned out to be an only child (11.0%) while 275 of them had 2 siblings (72.0%), which was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61 of them with 3 siblings (16.0%) and 4 of them with 4 siblings (1.0%). As for family type, there were 349 participants in nuclear family (91.9%), while 36 of them were in extended family (9.4%).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82)

Variable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90	49.7
	Female	192	50.3
Grade	2nd	196	51.3
	3rd	186	48.7
Academic Performance	High	96	25.1
	Intermediate	206	53.9
	Low	80	20.9
Number of Siblings	0	42	11.0
	1	275	72.0
	2	61	16.0
	3	4	1.0
Family Type	Nuclear Family	346	90.6
	Extended Family	36	9.4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in the Study

As fundamental data for verifying the hypothesis in the study,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of the variables were calculated (Table 2).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used in the study were distributed in the scope where absolute value assumed normal distribution.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all the variables were not deviated from uni-variate normal distribu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in the Study (N=382)

Variables	Average±SD	Range	Minimum	Maximum	Skewness	Kurtosis
Family Hardiness	3.06±0.37	1-4	1.35	4	-.108	.642
Community Resource Support	2.13±0.78	1-5	1	5	.871	1.530
Spiritual Support	2.06±1.22	1-5	1	5	.956	-.295
Family Communication	2.95±0.49	1-4	1.29	4	-.162	.146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3.24±0.55	1-4	1.25	4	-.723	1.126
Ego-Identity	3.55±0.58	1-5	1.98	4.86	.010	-.317
Parental Attachment	3.68±0.60	1-5	1.46	4.74	-.737	.424
Peer Attachment	3.72±0.49	1-5	2.40	4.84	-.226	-.537
Internalizing problem	.27±0.27	0-2	0	1.40	1.436	1.922
Externalizing problem	.24±0.22	0-2	0	1.07	1.292	1.540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In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the factor load was used to confirm whether each of the measuring variables well reflected the potential variables (Table 3).

Table 3 . Factor Load in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Measuring Variables	Sub-Factors	B	S.E.	β	C.R	<i>p</i>	
Family Hardiness		1.000			-	-	
Spiritual Support		1.000		.319			
Local Community Resource		1.106	.522	.547	2.121	.034	
Family Communication		1.000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1.000					
Ego-Identity	Self-Acceptance	1.000		.756			
	Certainty in the future	.573	.072	.500	7.985	***	
	Goal orientation	1.055	.085	.809	12.450	***	
	Initiative	.967	.078	.744	12.473	***	
Parental Attachment		1.000					
Peer Attachment		1.000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Anxiety/depression	1.000		.925			
	Internalizing problem	Intimidated/depression	1.034	1.074	.854	20.037	***
		Symptom of Somatization	.660	.044	.697	15.015	***
	Externalizing problem	Violation of Rules	.502	.035	.764	14.380	***
		Aggressive Behaviors	1.000		.919		

*** $p < .001$

Verification of Hypothesis Model

In order to clarify variables that influenced on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this study, the hypothesis model was verified according to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et al., (1996). By using structured tools, hypothetical model with factors related to adaptation of adolescents including family hardiness, community resource support, spiritual support, family communication, and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ego-identity,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issues of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as observable variables has been verified (Table 4, Figure 1).

Table 4. Model Appropriateness index (N=382)

Appropriateness	Standards of Appropriateness	Estimated Values
Absolute Appropriateness Index	χ^2 (Cmim) (<i>p</i> value)	192.629 (<i>p</i> <.001)
	χ^2/df	$p \geq .05$
	GFI	$\leq 1.0(2.0-3.0)$
	AGFI	$\geq .90$
	RMR	$\geq .90$
	SRMR	.05-.08
	RMSEA	$\leq .08$
Increment Appropriateness Index	NFI	.019
	TLI	$\leq .08$
	CFI	$\leq .10(.05-.08)$
Increment Appropriateness Index	NFI	$\geq .90$
	TLI	$\geq .90$
	CFI	$\geq .90$
		.930
		.937
		.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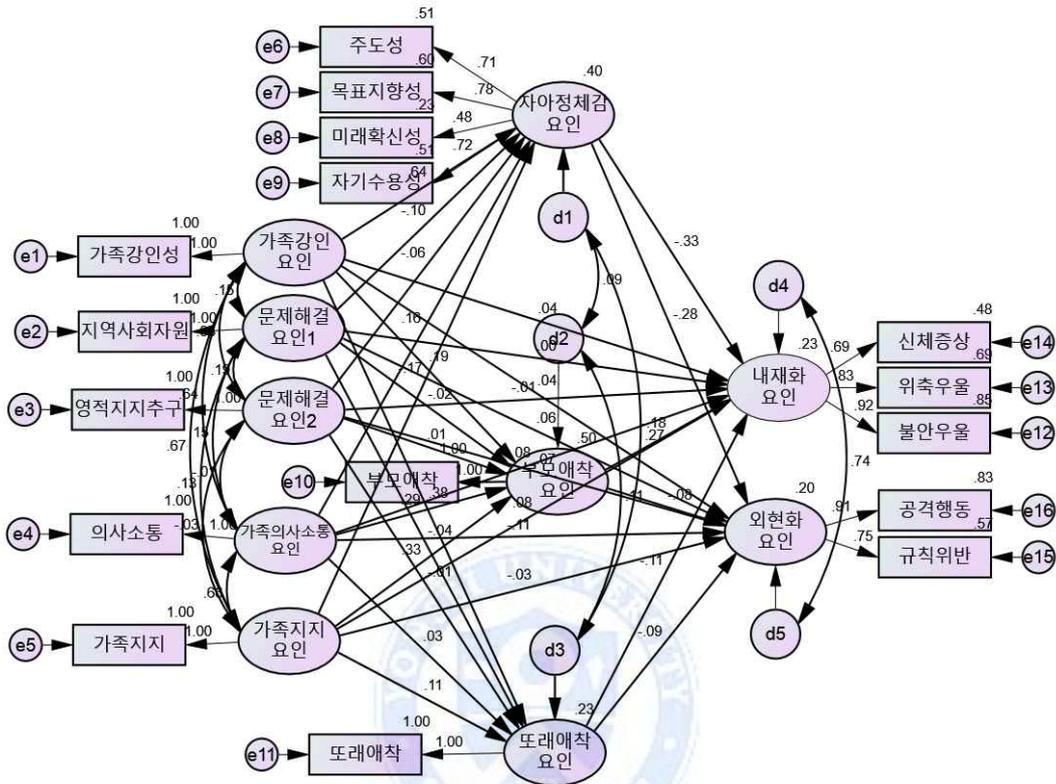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s Model of Estimated Parameter

Effect Analysis of Hypothesis Model

In order to identify the total effect of final model,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each of the routes were analyzed (Table 5). The indirect effect was that an effect between two variables was mediated by other variables (Woo Jong-pil , 2012), and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was verified using Bootstrap.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Model

(N=382)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p</i>)	Indirect Effect (<i>p</i>)	Total Effect (<i>p</i>)
Ego-Identity			
Family Hardiness	.64(.005)		.64(.005)
Family Communication	.17(.046)		.17(.046)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18(.064)		-.18(.064)
Spiritual Support	-.09(.098)		-.09(.098)
Community Resource Support	-.06(.264)		-.06(.264)
Parental Attachment			
Family Hardiness		.19(.004)	.19(.004)
Family Communication		.29(.007)	.29(.007)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33(.003)	.33(.003)
Spiritual Support		-.02(.829)	-.02(.829)
Community Resource Support		.01(.717)	.01(.717)
Peer Attachment			
Family Hardiness		.38(.003)	.38(.003)
Family Communication		.03(.694)	.03(.694)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11(.158)	.11(.158)
Spiritual Support		-.04(.392)	-.04(.392)
Local Community Resource		-.01(.847)	-.01(.847)
Issue of Internalization			
Family Hardiness	.04(.763)	-.29(.004)	-.25(.004)
Family Communication	-.08(.198)	-.11(.008)	-.19(.014)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08(.372)	-.01(.784)	.07(.420)
Ego-Identity	-.33(.008)		-.33(.008)
Parental Attachment	-.18(.021)		-.18(.021)
Peer Attachment	-.11(.170)		-.11(.170)
Spiritual Support	.00(.891)	.04(.106)	.04(.573)
Community Resource Support	.00(.922)	.02(.356)	.02(.765)
Issue of Externalization			
Family Hardiness	.04(.708)	-.23(.004)	-.19(.021)
Family Communication	-.11(.156)	-.07(.033)	-.18(.017)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03(.579)	.01(.839)	-.02(.721)
Ego-Identity	-.28(.005)		-.28(.005)
Parental Attachment	-.09(.328)		-.09(.328)
Peer Attachment	-.09(.200)		-.09(.200)
Spiritual Support	.06(.406)	.03(.091)	.09(.134)
Community Resource Support	.06(.336)	.02(.301)	.08(.199)

Discussion

This study has verified a model of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et al. (1996) as a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ovided an extended application of a family resilience model as well as an importance of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where there have not been many researches focusing on family resilience factors of adolescents in a normal growth course in developmental crisis.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Family Resilience Model of McCubbin representing how it was turned out to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 on family hardiness, family communication,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ego-identific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herefore, family resilience model in this study is regarded as a simple but appropriate model that can explai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Hereupon, it seems that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resources for the application of nursing intervention and family-oriented nursing for promotion of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various situations.

Meaning of Study

Meaning of the study in terms of nursing theory, nursing research, and practical nursing is as follows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Theoretical Aspect

This study has verified a resilience model of McCubbin et al. (1996) on adolescents. By verifying the family resilience model that could

accurately understand and explain what types of resilience factors influenced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developmental crisis in terms of a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is study ha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In addition, it has confirmed the importance and usefulness of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through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in the resilience model. Seen in this perspective, it is anticipated for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to contribute to the extended application of resilience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family-oriented nursing theory.

Nursing Research Aspect

In this study, a body of knowledge that could explain and predict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holistic manner has been provided by offering explanation and inference on the concepts that constituted routes according to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mediating effect from family resilience factors and individual variables that influenced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verify route analysis and causal relationship of family resilience that influences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shown in this study.

Practical Nursing Aspect

When a nurse teacher at school or a charging nurse of adolescents consults with them in the development crisis for their stress, conflict, and other problematic situations, fundamental resources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 for improvement of adaptation will be applied by planning and establishing interventions for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full consideration of family resilience factors and individual variables and providing useful instructions.

Limitation of the Study

First of all,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et al. (1996) us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study was to emphasize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on the change of human behaviors. Therefore, it was limited for not being able to suggest specific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at represented each of the levels.

Therefore, this study has suggested a hypothetical model according to resilience factors that can explain and predict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based on family resilience and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confirm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 However, it will be limited to provide specific explanation on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each of the factors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Secondly, it is an issue related to measurement error of participants for the survey used as a research tool. Prior to collecting data in this study, review was made by an expert along with preliminary examination as an effort to reduce such an issue. However, measurement error is still of an issue in this study using self-report survey.

Third, it is an issue related to non-response error due to non-response of participants. In case of low collection rate, there might be an issue of selection bias.

Fourth, only 63 questions regarding an issue of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among 118 questions for each of the K-YSR variables in terms of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the tools of this study were extracted and applied. Hereupon, it is difficult to provide an extended interpretation of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as a whole. If there are participants in an extreme situation of a particular case, what is required to consider is to notify a relevant school and apply consultation and also a program available in school.

Conclusion

By verifying a structural model established based on the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et al(1996). As well as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ed to obtain fundamental data for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to explain and predict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This study was to establish hypothetical explanatory model in regard of adaptation of psycho-social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according to the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et al. (1996) and literature review; to construct the hypothetical model about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through cross-sectional investigation research; to identify routes; and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hypothetical model is comprised of 5 exogenous variables and 5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are comprised of family hardiness, spiritual support, local community resource, family communication, and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while endogenous variables including ego-identity,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daptation of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As for participants in this study, adolescents in middle schools in

all over the nation were the population while 2nd and 3rd graders in middle schools in D Metropolitan City and the city of G were targeted population. Therefo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otal 400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was appro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Yonsei University (IRB approval number: Department of Nursing IRB 2015-0029-1) and was implemented for 8 days from October 12th to 19th in 2015 after researchers were given explanation including autonomous selection and suspension as well as guarantee for secret in the participation in research and agreement from guardians and participants for involving in the study.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PSS WIN 20.0, AMOS 20.0 program for 382 copies of data after excluding 18 unusable copies which were not collected or with insufficient survey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According to the result of verification of hypothetical model in this study, an index of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in this study was turned out to be positive including χ^2 , $p < .001$, χ^2/df , GFI, NNFI, CFI. Therefore, analysis was proceeded without a modified model since study model was judged to be appropriate in the sample data.

- Among 31 hypothetic routes that influenced on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the hypothetical model, 13 of them were supported.

Therefore, according to aforementioned results in the study, an a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supporting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s suggested to be performed by developing and utilizing a program for improving family hardiness, family communication, ego-identity, and parental attachment.